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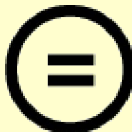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밀레니엄 時代 디자인 트렌드分析 을
통한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金 渲 閔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 仁 淑

밀레니엄 時代 디자인 트렌드分析 을
통한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Proposal Hair Design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of Design Trend in The New
Millennium age

2009年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金 渲 閔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申 仁 淑

밀레니엄 時代 디자인 트렌드分析 을
통한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Proposal Hair Design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of Design Trend in The New
Millennium ag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金 渲 閔

金渲閔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밀레니엄시대 이전의 헤어디자인의 유행적 특성	3
1. 아르누보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3
2. 아르데코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6
1) 벨 에포크시대	6
2) 제1차 세계대전 전 후	6
3. 대공황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0
4. 제2차 세계대전과 후의 헤어디자인 특성	12
5. 대중문화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5
6.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8
7. 20세기말 헤어디자인 특성	20
제 3 장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트렌드 유형	26
제 1 절 밀레니엄 시대 문화 트렌드 유형	26
1. 사회·문화	26
1) 라이프스타일 개념	27
2) 밀레니엄 시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28
3) 밀레니엄 시대 신인류	35
2. 복 식	40
1) 2000년	40
2) 2001년	41
3) 2002년	42
4) 2003년	42
5) 2004년	43

6) 2005년	44
7) 2006년	44
8) 2007년	45
9) 2008년	45
10) 2009년	46
11) 2010년	47
 제 2 절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53
1. 헤어디자인 트렌드	53
2. 헤어디자인 유형	56
1) 헤어 디자인 유형	56
2) 감성이미지를 이용한 유형분류	86
3. 헤어디자인 특성	90
 제 4 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제안 연구 사례	93
1. 헤어디자인 컨셉 설정	94
2. 헤어디자인 적용 연구 사례	100
 제 5 장 결 론	112
 참 고 문 헌	116
영문 초록	120

< 표 목 차 >

[표3-1] 새로운 밀레니엄의 7대 마케팅 트렌드(1999)	28
[표3-2]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 (2002)	29
[표3-3] 2003년 한국인의 사회지표	30
[표3-4] 종목별 1998,2003년 VS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비교	33
[표3-5] 종목별 1998,2003년 VS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비교	34
[표3-6] 세대별 종족별분류	39
[표3-7] 안현경의 이미지 분류	86
[표3-8] 정옥희의 이미지 분류	86
[표3-9] 김정순의 이미지 분류	87
[표3-10] 장규순의 이미지 분류	87

< 연구분석표 목차 >

[연구분석표2-1] 밀레니엄시대 이전의 헤어디자인 특성	25
[연구분석표3-1] 시즌별 트렌드 무드	48
[연구분석표3-2] 헤어디자인 특성	91
[연구분석표3-3] 헤어디자인 변화 추이	92

〈 그림 목 차 〉

<그림2-1> 무하	3
<그림2-2> 코르셋 광고 사진	4
<그림2-3> 풍파두르 스타일	5
<그림2-4> 카밀 클리포드	5
<그림2-5> 여성의 사회 진출, 제1차 대전 당시의 보조 여성 경찰	7
<그림2-6> 메리 픽포드	8
<그림2-7> 루이스 부룩스	9
<그림2-8> 클라라 보우	9
<그림2-9> 대공황 당시 실업자들 (미국)	10
<그림2-10> 그레타 가르보	11
<그림2-11> 마를린 디트리히	11
<그림2-12> 히틀러	12
<그림2-13> 여성의 사회 진출	12
<그림2-14> 베티 그레이블	13
<그림2-15> 리타 헤이워드	13
<그림2-16> 이유없는 반항 제임스딘	14
<그림2-17> 엘비스 프레슬리	14
<그림2-18> 그레이스 켈리	14
<그림2-19> 오드리 헵번	14
<그림2-20> 마를린 먼로	14
<그림2-21> 아프로 스타일	17
<그림2-22> 히피 스타일	17
<그림2-23> 비틀즈	17
<그림2-24> 파이프 포인트 커트	17
<그림2-25> 60년대 부풀린 스타일	17
<그림2-26> 찰리의 전사들	23
<그림2-27> 파라 포셋 메이저	23

<그림2-28> 모혹 스타일	23
<그림2-29> 스파이크 헤어	23
<그림2-30> 데이빗 보위	24
<그림2-31> 다이애나비	24
<그림2-32> 제니퍼 애니스톤	24
<그림2-33> 아프로 브레이드	24
<그림3-1> 2000 파리컬렉션	49
<그림3-2> 2001 파리컬렉션	49
<그림3-3> 2002 파리컬렉션	49
<그림3-4> 2003 파리컬렉션	50
<그림3-5> 2004 밀라노 컬렉션	50
<그림3-6> 2005 밀라노컬렉션	50
<그림3-7> 2006 밀라노컬렉션	51
<그림3-8> 2007 밀라노컬렉션	51
<그림3-9> 2008 밀라노컬렉션	51
<그림3-10> 2009 밀라노컬렉션	52
<그림3-11> 2010 밀라노컬렉션	52
<그림3-12> 2009 F/W 컬렉션	55
<그림3-13> 2000 아모스	58
<그림3-14> 2000 이철헤어커커	58
<그림3-15> 2000 박승철헤어스튜디오	58
<그림3-16> 2000 레브론	58
<그림3-17> 2001 아 모 스	58
<그림3-18> 2001 박승철헤어스튜디오	58
<그림3-19> 2001 박준 미장	59
<그림3-20> 2001 로레알	59
<그림3-21> 2001 슈바츠코프	59
<그림3-22> 2002 박승철헤어스튜디오	62
<그림3-23> 2002 박준미장	62

<그림3-24> 2003 아모스	63
<그림3-25> 2003 웰 라	63
<그림3-26> 2003 자끄데상쥬	63
<그림3-27> 2003 비달사순	64
<그림3-28> 2003 프랑크 프로보	64
<그림3-29> 2003 장 끌로드 비긴	64
<그림3-30> 2004 아모스	67
<그림3-31> 2004 웰 라	67
<그림3-32> 2004 장끌로드 비긴	67
<그림3-33> 2004 장끌로드 비긴	68
<그림3-34> 2005 아모스	68
<그림3-35> 2005박준뷰티랩	68
<그림3-36> 2005웰 라	69
<그림3-37> 2005 로레알	69
<그림3-38> 2005자끄데상쥬	69
<그림3-39> 2006아모스	72
<그림3-40> 2006 박 준 뷰티랩	72
<그림3-41> 2006 박승철헤어스튜디오	73
<그림3-42> 2006 박승철헤어스튜디오	73
<그림3-43> 2006 Lee Kyung Min foret	73
<그림3-44> 2006 웰 라	74
<그림3-45> 2006 로레알	74
<그림3-46> 2006 자끄데상쥬	74
<그림3-47> 2006 비달사순	75
<그림3-48> 2007 아모스	75
<그림3-49> 2007 웰 라	75
<그림3-50> 2007 로레알	76
<그림3-51> 2007 자끄데상쥬	76
<그림3-52> 2007 프랑크프로보	76

<그림3-53> 2008 아모스	78
<그림3-54> 2008 박준뷰티랩	78
<그림3-55> 2008 박승철헤어스튜디오	79
<그림3-56> 2008 이가자헤어비스	79
<그림3-57> 2008 웰 라	79
<그림3-58> 2008 로레알	80
<그림3-59> 2008 자끄데상쥬	80
<그림3-60> 2008 자끄데상쥬	80
<그림3-61> 2009아모스	82
<그림3-62> 2009 박승철헤어스튜디오	82
<그림3-63> 2009 웰 라	83
<그림3-64> 2009 로 레 알	83
<그림3-65> 2009 자끄데상쥬	83
<그림3-66> 2009 비달사순	84
<그림3-67> 2009 프랑크프로보	84
<그림3-68> 2009 프랑크프로보	85
<그림3-69> 2009 로 레 알	85
<그림3-70> 감성이미지 분류	89
<그림3-71> 연도별 감성이미지	89

< 도해연구사례 목차 >

<도해연구사례 1>	100
<도해연구사례 2>	102
<도해연구사례 3>	104
<도해연구사례 4>	106
<도해연구사례 5>	108
<도해연구사례 6>	110

< 적용연구사례 목차 >

<적용연구사례 1> 스퀘어커트	101
<적용연구사례 2> 블레이즈와 모혹스타일	103
<적용연구사례 3> 로맨틱 이미지 업스타일	105
<적용연구사례 4> 내추리 이미지 스타일	107
<적용연구사례 5> 엘레강스 이미지의 웨이브와 풍파두 스타일	109
<적용연구사례 6> 모던 이미지의 로우 그라데이션 커트	11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뷰티의 역사는 문명과 함께 시작 발전하고 있다. 아름다움의 탐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용분야는 각 시대의 흐름,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인간이 지닌 미적 본능의 욕구에 의해 새롭게 발전되고 있으며 단순한 치장의 기능을 넘어 생활환경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용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와 사고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용분야는 20세기 이후부터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사회 심리적 효용성 등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뷰티는 각 시대의 사회 문화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트렌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들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변화 되어 왔기 때문에 디자인 트렌드, 패션트렌드 등의 뷰티의 흐름과 경향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겠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각종 트렌드 속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패션트렌드, 헤어 디자인 트렌드 등 뷰티트렌드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기존의 생활양식과는 다른 삶의 패턴과 패턴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패션의 시작이 되고 특히 헤어디자인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헤어디자인 트렌드는 사회·문화 그리고 패션과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전반에 걸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따라서 본연구자의 목적은 세대가 거듭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라이프스타일과 사회 문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패션과 뷰티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특성에 따른 헤어 디자인 적용 연구를 통해 뷰티산업 종사자와 헤어디자이너 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흐름을 예상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자는 밀레니엄 시대의 헤어디자인 제안을 위해 21세기 헤어디자인 트렌드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두었다. 더불어 21세기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20세기의 헤어디자인 문화 트렌드 유형을 고찰하였다.

밀레니엄시대 사회·문화와 라이프스타일, 패션을 고찰하여 뷰티트렌드와의 긴밀함을 살피고 헤어디자인 트렌드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헤어디자인 적용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의 패션 및 헤어디자인을 포함한 뷰티트렌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삼성디자인넷의 뷰티트렌드자료와 패션 트렌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선행논문과 헤어잡지, 신문,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그 토대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의 순서는 첫째, 20세기 헤어 디자인 유형을 고찰하여 밀레니엄 시대의 패션, 뷰티트렌드의 형성 배경이 된 20세기 전반의 헤어디자인 문화 유형을 고찰하고자한다.

둘째,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트렌드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밀레니엄 시대 사회·문화를 고찰한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고찰 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한다.

셋째, 밀레니엄 시대 패션 트렌드와 뷰티트렌드를 살피고 헤어디자인 유형을 분석하여 그 흐름의 특징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을 제안 한다.

제 2 장 밀레니엄시대 이전의 헤어디자인의 유행적 특성

1. 아르누보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890~1910)

19세기말 영국에서 태동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예술 양식 아르누보(Art-nouveau)는 산업혁명 후 중세 장인 시대를 동경하며 나타난 새로운 공예운동으로 자연과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주로 꽃과 식물, 여인이며 인상주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색이 주조를 이룬다. 이는 아르누보시대의 대표작가 알퐁스 뮤사(Alphonse Mucha)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¹⁾<그림2-1>

이시기는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으로 인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몰랭 루주를 중심으로 댄스홀, 카바레등 이 번성하였다. 이 시기는 화려한 파리 왕실과 사교계의 향락적인 문화가 형성된 낙천적이고 낭비적인 시대였으며, 상류귀족과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멋을 즐겼던 최후의 시대였다.



<그림2-1> 무하 / Alphonse Mucha (1860-1939)

출처 (www.cft.or.kr/library)

1)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현대패션100년』, 교문사, 2002, p.21

이 시기의 모드에 영향을 준 것은 발레 이었다. 1903년 이사도라 던컨의 파리 공연과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이 파리 공연에서 선보인 눈부시고 선명한 색조의 의상들은 파리 모드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며 이후 1910년대 오리엔탈 룩의 선구가 되었다.

패션은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여전히 코르셋을<그림2-2> 착용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높게 틀어 올린 풍파두르(Pompadour)머리에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허리를 조이고 hips를 강조하는 S-curve 실루엣은 아르누보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S형 실루엣의 유행은 1908년경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점 증가 하면서 치마길이가 짧아진다.



<그림2-2> 코르셋 광고 사진

출처 (www.samsungdesign.net/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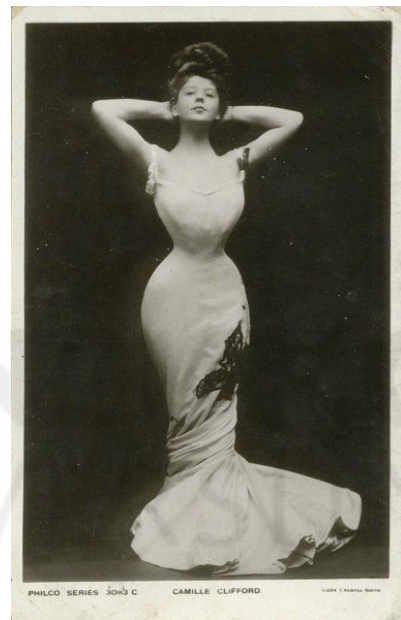
인체를 억압하는 코르셋의 S형 의상은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예복에 애용되던 엠파이어 스타일은 일상복에도 유행하게 되었고, 이 시기 불어 닥친 오리엔탈리즘과 러시아 발레의 영향으로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된다.

풍파두르(Pompadour)스타일<그림2-3>은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풍파두르(Marquise de Pompadour)가 유행시킨 헤어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이 나타난 최초에는 가르마를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두상에 붙여 빗어 올려 머리 뒤에서 정리해 양쪽 귀 밑으로 애교머리를 내놓는 방식으로 나타났었다.²⁾ 하지만 아르누보 시대의 풍파두르 스타일은 느슨한 형태로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났다. 앞머리는 이마 위로 빗어 올리고 기다란 뒷머리는 뒤에서 올려 높이 고정시키거나 여덟 개로 뿔은 머리가 머리 뒷부분에 고정시키는 스타일과 쉬농을 더 위로 끌어 올린 머리등을 많이 하였다. 1904년에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퍼머넌트 웨이브가 등장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그림2-3>³⁾ 풍파두르 스타일



<그림2-4> 카밀 클리포드
출처 (<http://tenebre.egloos.com>)

이 시대의 이상적인 스타일은 미국인 ‘찰스 데이너 킵슨’ 이 창조한 킵슨걸로 표현된다. 킵슨걸의 대표적 아이콘은 영국의 카밀 클리포드 (Camille Clifford) <그림2-4>이었다. 또한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 (Anna Pavlova), 모던 댄스의 개척자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 이 있었다.

2) 박형심의 6명,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4, p.225

3) 양숙향의 2명, 『패션20세기』, 교학연구사, 2006, p.18

2. 아르데코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907~1930)

1) 벨 에포크시대 (Belle Epoque, 1907~1914)

아르데코(Art Deco)는 아르누보가 절정을 다할 무렵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1910년대에는 아르데코(Art-Deco)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아르데코는 장식 미술(Art-decoratif)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유행하였던 아르누보가 수공예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연속적인 곡선의 선율을 강조했다면, 아르데코는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였고 형태를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밝은 색상을 강렬한 색채 대비로 표현하였다. 또한 1914년 이후에는 데스틸 운동과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능성과 단순함이 가속화되었다.

1910년대 복식은 오리엔탈리즘의 영향과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직선적 실루엣으로 변화하게 된다. 단순한 둥근형 드레스나 V네크라인의 드레스가 소개 되었다. 이때는 가슴의 강조가 줄고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위치이거나 약간 올라가서 몸이 더 편안하게 되었다.

헤어스타일 에서도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전시대의 과잉장식의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의 스타일이 선보이게 된다. 뒷머리를 틀어 올려 이마 혹은 턱, 네이프(nape)등 다양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풍파두르 스타일과 모발을 한 가닥으로 땀아 두른 ‘트레머리’ 스타일등이 유행 하였다. 또한 미디엄 길이의 웨이브 머리가 잠시 유행하기도 하였다.⁴⁾

2) 제1차 세계대전 전 후 (1914~1930)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하기 전 기능주의의 영향은 여성 헤어스타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보브 스타일이라 불리는 짧은 머리가 출현하

4) 광형심외 6명, 전게서 , p.229

게 되었다.

짧은머리를 처음으로 여성들이 하게 된 것은 1914년에 탱고 댄서로 유명했던 아이런 캐슬(Irene Castle)이 보브 스타일을 하고 춤을 추게 되면서 부터였다.⁵⁾ 또한 당시 유명했던 발레리나 이사도라 던컨 또한 춤을 출 때 보브 스타일 머리를 한 것도 역시 보브 스타일의 인기에 한 몫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브 스타일이 인기를 끈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전쟁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로 인해 유럽전역은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생겼다.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여자들은 남성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장과 직업 최 일선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그림2-5> 이렇게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자유와 권리,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여성해방 운동 으로 이어져 1918년 이후 많은 나라에서 남, 여 동등권을 인정하였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2-5> 여성의 사회 진출, 제1차 대전 당시의 보조 여성 경찰(1910)

출처 (The Mirror of History Fashion p.279)

이렇게 1차 세계 대전으로 여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과장과 장식적 요소가 사라지고 단순한 스타일의 머리가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적십자사 여자 유니폼은 남성들의 군복과 유사했다. 전쟁으로 인해 여자 복식이 단순하게 변화 하고 있었다. 헤어스타일도

5) 광형심의 6명, 전개서 , p.234

짧게 직선적으로 자르게 된다. 이 시기에는 웨이브진 단발머리와 짧은 헤어스타일이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그림2-6>



<그림2-6>메리 픽포드

출처 (<http://blog.allanellenberger.com>)

전쟁이후 보브 스타일은 꾸준한 인기를 끌었고 원랜스 보브와 액센트 보브 등으로 커트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쇼트커트는 남성스타일처럼 아주 짧고 층이 지도록 한 헤어스타일이다.

20년대 중반이 되면 더 짧은 형태의 머리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쉐글(Shingle)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형태는 남성헤어스타일처럼 뒷머리를 짧게 쳐주는 모양이었다. 쉐글은 영국에서 이튼 크롭(Eton crop)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튼대학(Eton college)의 남학생 스타일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⁶⁾ 옆과 뒤를 짧게 쳐주고 옆가리마를 타 한쪽으로 빗어 넘긴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보이쉬 밥(Boish bob)이라 불렀는데 그 형태는 지금의 단발과 쇼트의 형태였다. 결국 이들은 쇼트커트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겠다.

1920년대는 재즈(Jazz)의 시대 대중의 시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이었던 여성, 흑인, 노동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20년대 초 서구 세계는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때 사람들은 재즈와 함께 풀어나갔다. 이전까지 시대적 주인공이 발명가, 과학자들이었다면, 1920년대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약자로 있던 여성, 흑인, 노동자 등 이름하여 '대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대중의 시

6) 박형심외 6명, 전계서, p.236

대가 열리게 된 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였다. 재즈는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즐거움, 가볍게 들뜨기, 흥청대기 등의 단어로 해방감을 표현하고 있다. 1920년대의 재즈는 당시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에게 ‘광란’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재즈의 유행은 재즈 댄스의 붐으로 이겼고 댄서들의 머리모양은 쇼트커트 유행에 한 몫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복식의 변화를 초래했는데 불규칙한 짧은 스커트를 입어 율동미를 연출했으며, 운동감을 위해 등이 노출된 복식을 입기도 했다.



<그림2-7> 루이스 부룩스

출처 (<http://csusap.csu.edu.au>)



<그림2-8> 클라라 보우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이시기 여성복은 인체의 곡선미를 부각시킨 실루엣과 곡선적 문양 대신 기능과 실용을 추구하는 직선적이며 원통형의 의복과 기하학적인 패턴이 애용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짧고 가슴은 납작한 소년 같은 보이쉬 스타일 (Boyish Style)과 여성성을 가미한 가르손느 스타일 (Garoonne Style)이 유행 하였다. 가르손느 스타일은 미국에서 플래퍼 룩 (Flapper Look) 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당시 신여성의 상징이었다.⁷⁾ 소년풍의 모습은 젊고 활동적인 여성성을 표출하면서 의복에서는 직선적인 실루엣에 짧은 스커트를 착용하여 매우 기능적으로 보였다. 또한 스포츠 룩 (Sport Look)이 출현하여 대중화 되었다.

현대 영화배우들을 있게 한 선구자 ‘클라라 보우’ (Clara Bow)<그림

7)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전게서, p.89

2-8>와 루이스 부룩스(Louise Brooks)<그림2-7>가 패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탔다.

3. 대공황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931~1940)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적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후 세계경제에 대 파탄을 모고 왔다.<그림2-9>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 세계를 휩쓴 혁명에 이어 대규모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산업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기운이 일어났고 이로써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2-9> 대공황 당시 실업자들 (미국)

출처 (www.koreadaily.com/news)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헤어스타일도 남성적인 스타일이 아닌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을 요구 했다. 이 무렵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Permanent wave style)이 등장한다.

퍼머넌트 웨이브란 자연 상태의 두발에 대해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하여 모발의 구조나 상태를 오래 지속되는 웨이브 상태로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여러 가지 열 파마가 있었지만 물이 닿으면 풀린다던가. 모발에 손상을 일으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1936년 영국의 스피크먼(J.B.Speakman)교수에 의해 모발 케라틴의 하학 구조를 이용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틴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연구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Cold permanet wave)의 원리가 전해지면서 유행하게 된다. 특히 시술시간이 2~3시간으로 짧고 열로 인한 위험이 없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게 된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1920년대의 짧은 머리를 길러 귀를 반쯤 가리면서 목덜미 쪽에 느슨하게 내려오도록 웨이브를 만든 페이지보이 밥드 스타일(Page-boy bobbed style)이 유행하였다.⁸⁾ 그리고 반대로 밖으로 말아 웨이브가 밖으로 말리도록 하는 스타일과 곱슬곱슬한 앞머리는 이마 위로 내려뜨리고 나머지는 머리위로 틀어 올리는 에드워드디언 스타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2-10> 그레타 가르보
출처 (www.amoeba.com/blog)



<그림2-11> 마를린 디트리히
출처 (mhpbooks.com/mobyli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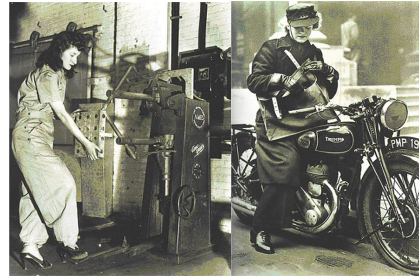
퍼머넌트 웨이브는 대 공황이라는 최악의 불경기, 실업과 인플레이가 늘어나고 이전까지 보이던 여성운동 퇴조와 맞물려 고전적 여성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와 과학의 발전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머리 형태이며 헤어디자인 시술의 혁명이었다. 당시 패션 아이콘으로 는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2-10>, 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2-11>가 있었다.

8) 이정옥외 2명,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398

4. 제2차 세계대전과 후의 헤어디자인 특성 (1941~1960)



<그림2-12> 히틀러
출처 (<http://blog.chosun.com>)



<그림2-13> 여성의 사회 진출
출처 (<http://cft.or.kr/library>)

40년대는 ‘열전’ 속에서 시작되어 ‘냉전’과 더불어 막을 내린 시대였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최악의 전쟁이 일어났다.<그림2-12>

전쟁은 소비재를 생산하던 공장을 군수품 공장으로 바꾸었고 이는 경제적인 침체를 가져왔다. 여성들은 다시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그림2-13> 이는 작업복 형태의 의복을 입게 되어 바지 차림이 보편화 되고 옷차림에 대한 관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섬유산업과 과학의 발전은 대량생산이 가능해 졌고, 이는 기성복의 등장을 이끈다. 이때 남성복과 여성복의 표준화도 이루어 졌다.

1940년대 패션은 밀리터리룩(Military Look)과 뉴룩(New Look)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7년 뉴룩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여성들은 밀리터리룩을 입었고 복식은 실용적으로 바뀌어졌다.

40년대 초 여성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넓고 각이진 어깨의 남성적인 밀리터리룩이 유행하였다. 그 후 전쟁기간 동안 물자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의 치마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좁은 실루엣을 형성 하였다.

1947년 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는 여성적인 라인의 뉴룩(New Look)을 발표하여 전후 패션계에 충격을 주었다. 가슴은 부풀려 올리고 딱 조인 허리에 hips를 강조한 뒤 짧은 재킷을 매치시켰다. 뉴룩은

초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비실용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전쟁 중의 규제된 패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성들에 의해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그림2-14> 베티 그레이블

출처 (<http://blogs.nyu.edu/blo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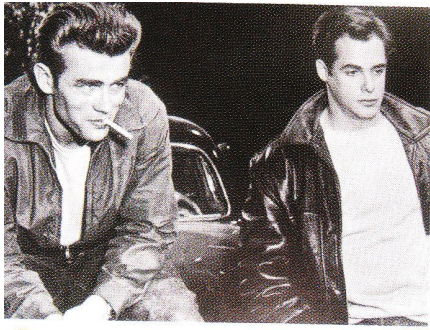


<그림2-15> 리타 헤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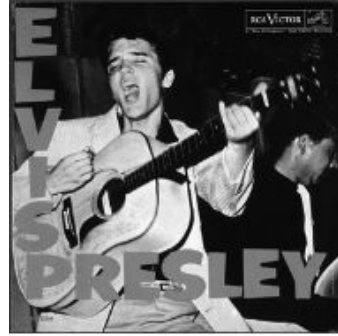
출처 (www.johnbarber.com)

이러한 경향 속에 헤어스타일에서도 복고풍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레이어 머리와 중간 길이의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 정수리에 묶어 고정시킨 다음 길로 장식하는 '업 수위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미디엄 길이의 웨이브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이시기 헤어스타일은 어깨까지 늘어뜨리거나 목덜미 정도의 페이지 보이 밥 스타일에 물을 말아 둥글게 말아 올린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당시 핀업 걸로 유명한 베티 그레이블(Betty Grable)<그림2-14>과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그림2-15>,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 에바페론(Eva Peron)이 패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잘 보여 주었다.

후반기에 접어들어 헤어스타일의 경향은 짧아지게 되었다. 뉴룩의 영향은 헤어스타일을 가능한 작아보이게 표현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것은 짧은 머리가 인기를 끌게 만들었다. 한편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빗어 묶은 포니 테일(Pony tail)스타일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소녀들에게서 유행하였다.



<그림2-16> “이유없는 반항” 제임스딘



<그림2-17>9) 엘비스 프레슬리

출처 (Icons of Fashion, p.77)

전쟁 후 50년대 세계는 경제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미국에서는 사치품과 기호품이 유행하고 1회 용품 사용이 증가 한다. 경제 호황은 젊은이들의 패션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경제력을 소유하게 하고 10대가 문화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음악, 화장품, 잡지 등이 등장했다.



<그림2-18>10)

그레이스 켈리



<그림2-19>11)

오드리 햅번



<그림2-20>12)

마릴린 먼로

대중매체의 힘이 커지면서 할리우드에서는 마릴린 먼로, 제임스 딘<그림 2-16>, Rock & Roll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2-17>가 인기를 끌고 대중문화가 발전한다. 특히 영화배우들의 스타일은 유행의 선두에 서게 되어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햅번 (Audrey Hepburn)<그림2-19> 이

9) LIFE, *Century of change America in Pictures 1900~2000* , LIFE, 2000, p.138

10) <http://www.edhumphries.com>

11) <http://morganafaye.wordpress.com>

12) <http://cinematicpassions.wordpress.com>

긴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을 흉내 내어 쇼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그림2-18>의 청순해 보이는 헤어스타일,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그림2-20>는 패션 아이콘으로 사랑을 받았다.

5. 대중문화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961~1970)

60년대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이는 역동적인 시대를 사고와 행동의 자유로움과 젊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기를 만들었다. 평등사상이 고취되면서 패션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유니섹스나 캐주얼웨어 등의 다양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물질만능 주의 사회상에 대한 반향으로 히피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 시켰고 이것은 70년대 히피패션(Hippie Fashion)의 기반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는 흑인들이 독특한 헤어스타일인 아프로 스타일(Afro style)이 등장¹³⁾<그림2-21>해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유행을 하였다. 이 스타일은 흑인사회의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로 흑인 조상에 긍지를 갖고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정신을 반영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꼬불꼬불하고 부스스한 흑인 특유의 머리를 장식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린 것으로 초기 형태는 길이가 조금 길게 나타났으나 그후 짧은 스타일이 나타났다.

자연으로 회귀를 추구하는 히피스타일(Hippie Style)<그림2-22>은 전 원풍의 집시 의상이나 남미 인디언 풍으로 구슬이 꿰어진 좁은 머리띠나, 스카프를 이마 위에 두르고 동양풍의 자수나 금속류의 장신구들을 온몸에 착용하였다. 그와 반대로 어떤 인공적인 느낌을 주던 것과는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그대로 풀어헤쳐 자연스러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Long Straight 혹은 Ethnic풍의 땡는 스타일의 경향도 있었다.

13) 권미윤외 1명, 「20세기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0(2) 2004, p182

남성들은 비틀즈<그림2-23>의 유행과 함께 그들이 입었던 러플 장식이 된 블라우스라던가 곱게 빗은 윤이 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유니섹스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60년대 비달사순(Vidal sasson)의 헤어스타일은 옹아트의 영향을 받아 골격에 맞는 기하학적인 영감을 컷에 가미시켰고 정교한 파이프 포인트 컷(Five Point Cut)<그림2-24>등의 보브 스타일 역시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유로움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선호한 헤어스타일은 높고 볼록한 형태였다. 이 스타일은 공기를 넣어 부풀린 것과 같은 과장된 스타일로서 이러한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볼록한 머리를 강조하기 위해 가발을 이용하기도 하였다.¹⁴⁾<그림2-25>

모델 레슬리혼비(Twiggy로 불림)는 옆 가르마를 탄 소년 같은 헤어스타일과 요정 같은 분위기로 10대 잡지에서 인기를 끌었고, 퍼스트레이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Jacqueline Kennedy Onnasis)가 패션 아이콘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시기 디자이너들은 당시 유행한 팝아트, 옹아트, 미니멀아트 등의 추상적 표현에 영향을 받아 작품에 반영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의 추구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모즈 룩(Mods Look)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시기 유행을 주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미니스커트를 선보인 메리 퀀트(Mary Quant), 미래적인 패션을 시도하여 스페이스 룩을 정착시킨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 몬드리안 드레스를 디자인해서 쿠티르 패션에 순수미술과 팝 아트를 접목시킨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소재 사용에 대한 기존 관념을 파괴시킨 파코 라반(Paco Rabanne), 그 외에 피에르 가르탱(Pierre Gardin), 엠마누엘 웅가로(Emmanuel Ungaro), 발렌티노 (Valentino) 등이 있다. 특히 메리 퀀트의 미니스커트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 반전문화의 히피 패션, 여성의 사회적 위치 상승의 유니섹스(Unisex)경향, 아폴로II호의 달 착륙으로 인한 우주의 동경이 만든 스페이스룩등을 60년대 전반적 패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14) Gertrud Lehnert,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Germany* : Konemann, 2000, pp.57~58.



<그림2-21> 아프로 스타일
출처 (<http://blog.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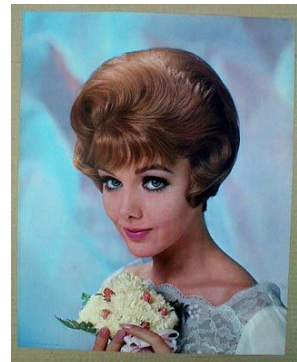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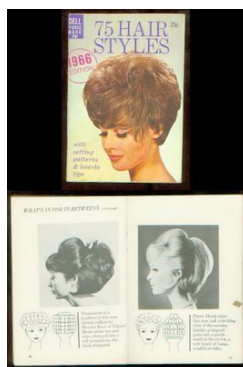
<그림2-22> 히피 스타일
출처 (<http://bluegirlredstate.typepad.com>)



<그림2-23> 비 틀 즈
출처 (<http://ask.nate.com/qna>)



<그림2-24> 파이프 포인트 커트
출처 (<http://fashionfacts.onsugar.com>)



<그림2-25> 60년대 부풀린 스타일
출처 (<http://hairhistory.blogspot.com>)

6.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헤어디자인 특성 (1971~1990)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지만 현대와 과거의 상호보완적 표현으로 보겠다.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 여성운동 · 흑인민권운동 · 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달러 쇼크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로 인해 경제는 불황을 사회는 불안심리가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1973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헤어스타일은 미디움과 롱 레이어의 전성기로서 흐르는 듯 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호하여 윗머리의 부피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모양의 파마 웨이브와 어깨길이의 웨이브가 유행 하였다. 짧은 머리는 모든 계층에서 유행 했으며 층이 있는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목뒤선 까지 길렀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머리에 층을 내어 머리카락을 어깨위로 향하게 하는 스타일이 유행 했으며 유니섹스 스타일이 유행 하면서 남 · 여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이 시기 젊은이들은 대중 매체 특히 영화, TV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에서는 TV시리즈 찰리의 전사들<그림2-26><그림2-27>의 여배우들의 모습이 유행하였고 영화 Love Story, 대부, 토요일 밤의 열기 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또한 70년대 유행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였다. 운동선수들의 의상은 대중들이 신체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70년대 사회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경제사회 윤리 속에서 반항하는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반문화, 안티 패션을 등장 시켰다. 이것이 펑크

(Funk)현상이다. 이 현상은 70년대 후반 영국의 젊은 노동자 계층이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을 복식으로 표현한 반 모드 현상이다.

펑크패션(Punk Fashion)은 절망감이나 욕구 불만 등 반항을 표현한 반 모드 현상으로 가죽 소재의 오토바이 복장 등의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었으나 하이 패션계에 새로운 신선함을 던져 주었다. 다양한 펑크스타일이 유행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스타일은 미국 New York주에 살던 북아메리카 모호크족의 머리 모양인 양옆을 면도하고 앞이마부터 뒤 목둘레까지는 둥근 모양으로 자르는 모혹 스타일(Mohawk Style)<그림2-28>, 그리고 옆머리는 자르지 않은 채로 머리가운데 부분으로 머리를 모아 부챗살 모양으로 쥘이나 무스로 뺏뺏이 세운 폴큐핀 스타일(Porcupine Style), 불규칙한 길이에 머리를 바짝 올려 세운 스파이크 헤어(Spike Hair)<그림2-29>, 머리를 뽁뽁 깎아서 그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니기도 한 스킨헤드(Skin Head)등이 있었고 그중 모혹 스타일이 가장 유명했다.¹⁵⁾

가수 신디로퍼는 펑크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매니쉬 룩(Mannish Look)의 영향으로 매니쉬한 스타일도 유행했다. 80년대는 서로 다른 문화나 주제가 복합되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이 다양하게 표출된 시기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복의 수트형에 여성성을 더한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이 유행하였다. 70년대의 유니섹스에 이어 남녀구분을 넘어서는 앤드로지너스룩(Androgynous Look)과 세계 환경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에콜로지 룩(Ecology Look)으로 나타나 천연 소재, 천연 염색 등의 소재와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을 특징으로 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운동복과 여가복의 개념으로 스포츠 웨어가 발달하게 되었고 스포츠 룩(Sports Look)의 인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80년대에는 돈 잘 벌고, 옷 잘 입고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고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무절제한 과소비가 행해졌던 적이 없었을 만큼 부자들은 마음껏 사치를 즐겼고 그만큼 빈부의 격차도 커져 갔다. 이때 새로운 라이

15) 광형심외 6명, 전계서, p265

프스타일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대도시 교외에 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층인 여피족(Young Urban Professional)이 그것이다.

이런 경향 속에 헤어스타일은 80년대 초반까지는 어깨까지 늘어뜨린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무스와 헤어 젤을 이용한 펑크스타일도 표현하였다.¹⁶⁾ 엔드로 지너스룩의 영향으로 데이빗 보위<그림2-30> 풍의 짧은 소년 같은 머리를 헤어로션이나 드라이로 손질해 유동감 있는 여러 스타일로 나타내고 있었고, 다양한 색깔의 염색을 많이 했으며 부드러운 웨이브가 유행하였다. 또한 다이애나비의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헤어컷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시기의 패션 아이콘으로는 다이애나비<그림2-31>, 보이조지(Boy George), 프린스(Prince)가 패션리더로 인기를 끌었다.

7. 20세기말 헤어디자인 특성

1990년대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술 분야에서의 절충주의와 기존 규범에 대한 해체 양상이 나타났다. 계층 간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고전적 가치 체계가 아닌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고 상호 교류됨. 즉, 양식이나 주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비평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트리트 패션, 해체주의 패션을 창출하였고, 하위문화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한편 계속되는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가상현실에 빠져 현실을 거부하고 첨단적이고 컬트적 이미지를 동경하는 풍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MTV는 미국 스타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슈퍼모델의 활발한 홍보로 일반인들도 하이패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패션의 최신 유행어는 미니냐, 맥시냐, 스트레치냐가 아니라 세계화'라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보도¹⁷⁾가 말해주듯 90년대 패션

16)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전개서, p.276

키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세계화였다. 1990년대 들어 케이블TV, 인터넷, 패션잡지 등을 통하여 최신의 세계패션 정보가 전 세계에 동시 전달되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의 영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 때 소비자들은 성향은 좀더 실용적인 구매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패션업체들은 계절이 지난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위떨이 세일(Clearance sale)보다 거의 일 년 내내 신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였다.¹⁸⁾ 특히 90년대 들어 우편주문, 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한 의류 판매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으며, 1998년 프랑스의 패션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인터넷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첫 번째 디자이너가 되었다.¹⁹⁾

1990년대 스타일은 자연주의, 민속풍, 복고풍이 패션 테마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런지(Grungy), 미니멀리즘(Minimalism), 에스닉(Ethnic), 레트로(Retro), 네오 히피(Neo-Hippie), 네오 클래식(Neo-Classic), 루주룩(Loose Look), 페미니즘(Feminism), 시스루(See-Through), 란제리룩(Lingerie Look), 사이버 패션(Cyber Fashion)등의 다양한 종류의 패션이 존재했었다.

90년대 거리 패션은 거리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되어 남녀를 불문하고 1990년대 젊은 층을 위한 패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힙합(Hip-Hop)’ 패션과 호트러져 보이게 옷을 입는 그런지를 들 수 있겠다. 그런지 패션 이후 유행한 것은 미니멀리즘패션이다. 미니멀리즘 패션이야말로 90년대를 특징짓는 패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니멀리즘 패션의 대표 디자이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질 샌더(Jil Sander), 헬무트 랭(Helmut Lang), 프라다(Prada)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20세기를 회고 하는 다양한 복고풍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은 복고풍 의상이 아닌 중고품 가게의 중고품을 찾아 새 옷과 함께 입

17) Elane Feldman, *Fashions of Decade-1990s*, New York : Facts on File, 1992, p.12

18) *ibid*, pp.21-21

19) Charlotte Seeling, *Fashion-The Century Of The Designer*. Könnemann, 2000, p.552

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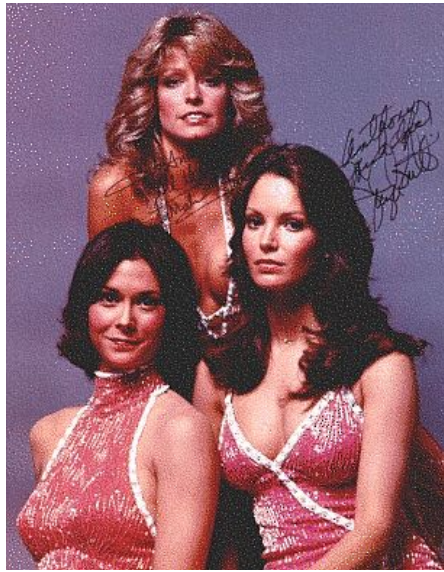
에스닉 스타일은 각국의 민속 의상들이 패션 트렌드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에스닉 스타일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보고 있다.

60년대에는 상체 부분에 끈만 있는 톱리스(topless) 수영복으로 인체가 노출되었는데, 90년대는 속이 비치는 직물로 인체가 노출 되었다. 시스루룩은 90년대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뉴 페미닌 스타일의 유행 이었다.

90년대는 융합, 혼합으로 의미하는 퓨전현상이 문화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서 크로스 오버패션이 나타나고 건강과 환경의 꾸준한 관심의 결과로 기능주의 스타일과 친환경 소재의 확산이 있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90년대는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 되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공존 하였다. 특히 Hair Coloring이 고도로 발달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반영한 밝은 색의 길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유행하였다. 또한 직선적인 뺨을 짧게 자르고 뒷머리는 쇼트커트를 한 헤어스타일도 유행하였다. 중반으로 오면서 에스닉 패션의 영향은 빗질하지 않아 부스스해진 머리를 가닥가닥 나눈 머리, 전체 머리를 땀은 아프로 브레이드(Afro Braids)스타일, 타이트한 웨이브 머리등을 유행 하게 하였다. 또한 오리엔탈 룩이 유행하면서 인도나 중국풍의 생머리나 직선적 뺨을 한 머리가 유행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의 유행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단순한 형태가 유행하였는데, 과잉장식을 배제하고 짧은 머리스타일을 연출 하거나 긴 머리를 할 때에는 생머리 혹은 굵은 웨이브를 보여주었다. 패션 아이콘으로는 제니퍼 애니스톤(Jennifer Aniston)을 들 수 있는데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70년대 레이어 스타일에 부분적인 밝은 컬러링으로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만들었고, 멕 라이언(Meg Ryan)또한 끝이 빠치게 자른 머리모양이 90년대 대중적으로 많이 모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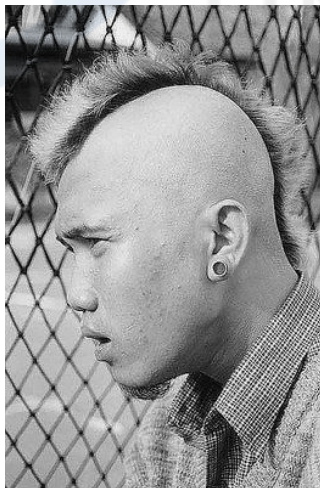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20C 고찰 통해 밀레니엄시대 문화 및 헤어스타일 형성에 밑거름이 된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연구분석표2-1]은 시대별 이슈와 패션, 헤어스타일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2-26> 찰리의 전사들
출처 (<http://toe10.tistory.com/15>)



<그림2-27> 파라 포셋 메이저
출처 (www.absolutepictures.com)



<그림2-28> 모혹 스타일
출처 (www.usefilm.com)



<그림2-29> 스파이크 헤어
출처 (www.punkhaircuts.net)



<그림2-30> 데이빗 보위

출처 (<http://the1tree.textcube.com>)



<그림2-31> 다이애나비

출처 (<http://blog.join.com/media>)



<그림2-32> 제니퍼 애니스톤

출처 (www.90s411.com)



<그림2-33> 아프로 브레이드

출처 (www.thewigmart.com)

[연구분석표2-1] 밀레니엄시대 이전의 헤어디자인 특성²⁰⁾

시 기	사회· 문화	패 셴	헤어스타일
1900's	• 제국주의 • 벨에포크 • 아르누보	• S 커브 실루엣 • 테일러드 슈트	• 풍파두르 스타일
1910's	• 1차 세계대전 • 여성의 사회진출 • 아르데코	• 직선적 실루엣 •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옷차림	• 웨이브진 단발머리 • 짧고 직선적 스타일
1920's	• 과학의 진보 • 재즈 • 사치와 쾌락의 시기	• 보이쉬 스타일 • 가르손느 스타일 • 스포츠 룩	• 이튼 크롭 스타일 • 보브스타일 • 웨이브 스타일
1930's	• 세계 대공황 • 영화산업 발달 • 초현실주의	• 롱 앤 슬림 실루엣 • 초현실 주의 복식 • 복식 기능의 세분화	• 페이지 볼드 스타일 • 에드워드안 스타일
1940's	• 제 2차 세계 대전 • 냉전 체제 시작 • 전쟁 영화 유행	• 밀리터리룩 • 뉴 룩 • 영 패션 성립기	• 둥글게 말아 올린 스타일 • 시농 스타일
1950's	• 냉전체제, 제3세계 등장 • 경제호황, 소비주의 • 대중문화 발전 • 추상 표현주의	• 라인의 시대 • 샤넬 룩 • 바지 착용의 일반화	• 오드리헵번의 숏스타일 • 포니테일스타일 • 시농 스타일
1960's	• 대중문화 발전 • 여성운동 • 하위문화 형성 • 팝아트, 옵아트 • 미니멀리즘	• 미니스커트 • 히피룩 • 유니섹스 룩 • 스페이스 룩	• 아프로 스타일 • 히피 스타일 • 비탈사순 기하학적 커트 • 부풀린 과장된 스타일
1970's	• 경제적 불황기 • 여성의 지위 상승 • 페미니즘	• 히피와 전원풍 • 펑크스타일 • 유니섹스 룩	• 펑크헤어(모혹, 폴큐핀) • 레이어드 컷과 웨이브
1980's	•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파죽 • 냉전종식 • 포스트모더니즘	• 빅룩 • 앤드로지너스 룩 • 에콜로지 룩	• 데이빗 보위 스타일 • 부드러운 웨이브 • 어깨길이 웨이브
1990's	• 세계화 • 세기말 경향 • 포스트모더니즘 • 미니멀 • 해체주의	• 에스닉 스타일 • 레트로 스타일 • 미니멀 스타일 • 크로스 오버 • 친환경	• 다양한 헤어 컬러링 • 쇼트커트와 직선적 앞머리 • 아프로 브레이드 • 긴 생머리와 굵은웨이브

20) 상기 [연구분석표2-1] 밀레니엄시대 이전의 헤어디자인 특성은 본 연구자가 연국 과정에서 요약 작성한 것임

제 3 장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트렌드 유형

제 1 절 밀레니엄시대 문화 트렌드 유형

1. 사회 · 문화

21세기는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사회 전반에 기존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치관에 이르기 까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밀레니엄시대 특징으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혁명을 주축으로 한 정보산업혁명,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태동과 세계화(Global)와 지역화(Local)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글로컬리즘(Glocalism)을 들 수 있다.

세계통합주의와 지역 중심주의가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글로컬리즘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세계통합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인간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가중심 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부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중심주의는 지역 중심주의대로 일정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면식관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지나치게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듯 세계통합주의, 지역중심주의, 동질화, 이질화 등 이분법적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질서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21세기가 지향하는 글로컬리즘 이다.²¹⁾

2000년대 초에는 90년대 중· 후반 세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2001년

21) 이진숙외 3명 『현대인의 패션』, 교문사, 2003, pp.95-96

미국 뉴욕의 9.11 폭탄 테러와 대 소규모의 연이은 테러들 2003년 이라크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공포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에 불안한 갈등과 심리적 대결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전쟁과 테러의 공포는 사회적 불안 심리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공포와 시대의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현상을 보였고 가족의 결속력으로 해소하려는 마치 누에고치가 보호막을 쳐가는 것같은 코쿠닝(cocooning)현상을 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사회는 좀더 다양화 세분화 되고 불안은 심화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쿠닝현상은 좀 더 발전하여 네스팅(nesting)현상으로 그리고 다시 하이빙(hiving)현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의 경향을 보면 보보스, 퓨전 등 획일성과 다양성, 기술과 자연, 일과 휴식 등 상반된 가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80년대의 획일성에서 90년대의 다양성 추구로 그리고 2000년대는 양면성을 공존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²⁾

밀레니엄 시대는 새로운 뉴 라이프스타일과 뉴 트렌드의 시대이다. 또한 신인류의 시대이다. 소위 우리는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끊임없이 분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종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종족, 트렌드를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1) 라이프스타일 개념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말로써 원래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던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과 소비자의 행동 연구 분야에서 시장 세분화를 위한 인구 통계학적 분류와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²³⁾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원래 1968년 막스 웨버와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에 의해서 분석적 용도로 언급된 이래 중요한

22) 어패럴 뉴스, '왜 감성 무드가 패션시장을 사로잡나?', 2003년01월23일

23) 김양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욕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8

사회적 분석단위로 인정되어 오고 있지만, 라이프스타일은 학자들의 분석 목적과 관심의 수준에 따라 달리 기술되고 있다.

2) 밀레니엄 시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21세기 라이프스타일의 파악을 위하여 마케팅그룹 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해 보았다.

[표3-1] 새로운 밀레니엄의 7대 마케팅 트렌드(1999) ²⁴⁾

	환경적 요인	소비패턴의 변화	향후 기업 대응
제도 정책	-환경/자연주의(EHS) -소비자보호정책 -주5일 근무제	Well-being 소비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Lohas 확산	건강과 환경중시 마케팅 확산 -웰빙 콘셉트의 신 브랜드 개발 -환경 친화적 기업이미지 강화
인구 통계	-싱글족 증가 -고령화 심각	선택 집중형 소비 -1일 1라이프스타일 증가 -소비구조조정 진전	개인별 맞춤화 상품 대거 출현 -생활패턴 변화 추적이 필수 -개인용 상품 일반화
경제 산업	-소득 양극화 -개인가치 중심 -디지털 급진전	관계지향 소비 -소비자간 교류를 확대 -소비자&기업 간 관계구축	서비스의 고품질화 상품화 붐 -교류지원사업 성장 -One-Person서비스 증대

LG주간경제 ‘뉴밀레니엄의 마케팅 트렌드 ‘(1999)에 의하면 [표3-1]과 같이 환경적 요인 즉, 바뀐 주 5일 근무제나 싱글족의 증가와 개인가치 중심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건강을 생각 하는 웰빙 트렌드의 소비자가 관찰되며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에서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소비자 프로파일 연구(CPR:Consumer Profile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중 2002년 CPR ‘한국인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 는 전국 6대 도시 서울,

24) 최우열, 「뉴밀레니엄의 마케팅 트렌드」, LG주간경제, 1999.7, P47
(강유정 「시장 다변화에 의한 소비자 트렌드 양상이 패키지디자인에 적용된 사례연구」, 한양대 디자인 대학원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04.8, p37 재인용)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과 16개 중소 도시에 거주자 만 15~59세 남녀 5,200명을 2002년 4월부터 약 1달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3-2]로 정리하였다.

[표3-2]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 (2002)²⁵⁾

1. 돈·브랜드·명품, 그리고 신용카드	• 중고생 등 젊은층에 더 확산된 물질 만능주의 • 실용성보다 브랜드 중시의 소비 시대
2. 오락적 도구로서의 인터넷	• 인터넷 혁명, 라이프스타일의 대변혁 • 정보 취득보다는 오락적 기능으로 활용
3. 조금 더 길어진 인생	• 실버산업 성장과 전통적 인식의 변화 • 건강하게 오래 살자
4. 커져가는 광고의 힘	• 광고 많이 한 제품을 더 많이 구입

주목할 부분은 3번이다. 한국은 점차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균 수명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도 변화하였다. CPR 결과를 살펴보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인식 또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생활 방식도 많이 변화하여 실제로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감소하였고, 가족들이 대화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비율도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이 건강을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음식 종류와 양을 조절하고, 보약을 챙겨 먹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CPR 결과를 살펴보면, 젊은 층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성인층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보다 많아진 노인층으로 인해 실버타운이 생겨나고, 건강 관련 제품이 호황을 누리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25) HS Ad Webzine, 2003.01.02

은 현재 조금 더 길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한국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건강하고 알찬 삶을 충실히 준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한국인의 사회지표조사’ 에서 [표3-3] 건강에 대한 관심은 98년 36.7%에서 ‘02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제 문제는 ’ 98년 30.5%에서 ‘02년 24.5로 감소하였다.

[표3-3] 2003년 한국인의 사회지표 (단위:%)²⁶⁾

	건강	경제	주택 주거	직장 구직	노후 문제	결혼 이성 교제	학업 진학	자 녀 양 육 및 교 육	가 족 간 의 관 계	자식 걱정	기타
1998	36.7	30.5	-	8.0	-	3.0	9.3	6.6	1.5	2.9	1.4
2002	44.9	24.5	3.1	6.5	1.5	2.5	7.4	4.6	1.2	1.8	2.0

이것은 잘 먹고 잘사는 법 ‘웰빙라이프 트렌드’ 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2005년 ‘삼성디자인넷’ 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보고를 보면 ‘디지털을 통한 자기 표현과 적극적인 자기 정체성 찾기, 감성적 소비문화, 지속적인 프리미엄 웰빙’ 을 키워드로 들고 있다.

디지털을 통한 자기 표현은 2005년에도 계속될 디지털로의 급속한 진보는 개인 중심의 관점에서 특히 강조될 것으로 보면서 ‘싸이’ 와 ‘블로그’ 의 유행을 들었고, 적극적 자기 정체성 찾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획일화 되어가는 트렌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성적 소비 소비문화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프리미엄 웰빙에서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웰빙 트렌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전의 웰빙이 그저 자연산 그대로를 먹고 신체를 다듬는데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보다 지속적이며 전반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다.

몇 가지 통계자료의 결과는 2000년대 라이프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

26) 정재철, 「국내패션 산업에 나타난 웰빙 문화 현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퓨전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 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04.7, P.6

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트렌드와 고도의 산업화 디지털화에 맞서는 자연주의 현상으로서의 웰빙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건강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를 모색하는 경향으로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다. 그 경향의 사례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하스(LOHAS)는 공동체 전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비생활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생활양식·행동양식·사고방식을 뜻한다.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미국의 내추럴 마케팅연구소가 2000년 처음 사용하였다. 환경보전과 '웰빙'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소비기반의 지속성을 아우른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현재 시점의 개인적 소비행위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소비활동을 연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런 점이 사회참여운동으로서 자연의 중요성과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친환경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운시프트(downshift)란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으로 다운시프트족은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바꾸듯이 생활의 패턴을 여유롭게 바꾸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만족을 추구하자는 일종의 '느림보족'을 뜻한다.

셋째, 슬로비 (Slobbie) 건강, 가정, 물질보다 마음을, 출세보다 가정생활을 중요시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 건강과 여유를 찾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넷째, 슬로우 푸드(Slow Food) 대량생산·규격화·산업화·기계화를 통한 맛의 표준화와 전 지구적 미각의 동질화를 지양하고, 나라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음식·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1986년부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식생활운동을 말한다.

다섯째, 슬로우 시티 (Slow city) 86년 패스트푸드에 반대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스로 푸드 운동이 발전된 것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도시들

은 자동차 추방, 경음기 사용금지, 자전거 권장, 보행자구역 확대 등 환경과 조화하며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을 편다.

또한 ‘복고’ 트렌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흐름은 구조조정이나 고용 불안정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안전 추구 성향이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추억으로 회귀하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고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지난 날에 대한 추억과 향수라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복고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 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 문화/소비 주체로 7080 세대 부상을 들 수 있다. 1970~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현재의 중년층을 가리켜 ‘7080 세대’ 라고 한다. 이들은 지나간 추억과 음악을 다시 즐기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콘서트 7080’ 과 같이 이들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과자들이 사랑 받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 마켓에서는 7080 세대의 추억의 물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7080 세대가 대중 문화 및 소비의 주력 세대로 등장하면서 복고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일기획, ACR 보고서 ‘2007 SWITCHing KOREA’²⁷⁾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여 2007년 현재의 대한민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알 수 있다. 크게 관심사 · 가치관 · 생활상 · 미디어와 소비로 나누어 조사됐다.

관심사 영역에서는 개인 관심사에 있어서는 직장 · 공해등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으나, 문화 · 패션 · 취미 · 여가 등과 같은 삶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영역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사회 관심사에서는 물가 · 범죄와 같은 현실적인 적인 면이 강한 민생고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으나, 교육 · 주자 ·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미래를 위한 준

27) www.cheil.co.kr/research/view.jsp?cmd=download&num=7

비와 선진화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먹고살기’를 위한 관심사에서 ‘즐기고 누리는 삶’을 위한 관심으로 변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3-4]의 가치관의 영역에 있어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라는 의식이 증가한 반면, 낭비를 통한 즐거움 추구,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였다. 또한 규칙·규범 등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결혼관, 가족관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느끼고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생 직장의 개념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성향은 증가하였지만, 현재 의 직장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종목별 1998,2003년 VS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비교²⁸⁾ (단위 : %)

	설문 내용	98년	03년	07년
가치관	즐겁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이다.		66.9	72.7
	결혼은 꼭 할 필요가 없다.	27.5	29.7	31.9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50.1	36.8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낭비는 필요하다.		51.0	45.8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42.6	38.0	38.9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46.1	41.4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4.0	43.0	46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24.8	24.5	27.7
	직장 동료와 회사 밖에서도 자주 어울리는 편이다.	13.9	16.1	16.1
	직장생활보다는 개인(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	11.6	15.6	16.0
	현재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다	24.8	11.2	9.3
	직업을 선택할 때는 급여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다.	22.2	23.5	18.5

[표3-5]의 생활상 영역에서는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 하였으나, 유기농·친환경 식품 등과 같은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모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려는 성향은 증가하였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행에 앞서가는 패션을 추구하는 성향도 증가하였다. 반면 유명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주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 시행

28) 제일기획 ACR 보고서 ‘2007 SWITCHing KOREA’

과 같은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이를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높아졌으며,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일상의 변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 증가하였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부동산 이외에 다양한 재테크 방식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종목별 1998,2003년 VS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비교 29) (단위 : %)

	설문 내용	98년	03년	07년
생활상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다	20.8	32.1	36.6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간을 항상 확인한다.		57.8	64.4
	인스턴트 식품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52.7	59.1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 쓰고 있다	35.3	40.0	42.5
	비싸더라도 유기농·친환경 식품을 사먹는다.		29.4	22.7
	주위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지 눈 여겨 본다.	44.7	43.6	38.2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푸는 편이다.	29.4	30.4	25.4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27.9	24.3
	주말이나 휴일은 주로 집 밖에서 보낸다.	33.7	38.0	38.2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8.3	40.5
	나는 대부분 여가시간을 자기계발 활동에 소비한다.		22.1	25.1
	돈은 인생에서 중요하며, 돈에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다.		50.3	60.9
	재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투자다.		41.0	35.8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39.8	33.7
	저축을 위해 힘들게 살기보다는 즐기 위해 돈을 쓰는 편이다.		22.4	19.6

미디어와 소비 영역에서는 인터넷이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수집을 위한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증대하였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광고 이외에 입소문 등과 같은 다른 접점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

29) 제일기획 ACR 보고서 '2007 SWITCHing KOREA'

치는 정도도 증가하였다. 쇼핑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성향이 강해졌으며, 신상품 및 첨단 기능에 대한 관심 및 구매 욕구도 증가하였다. 반면 충동 구매는 줄어 줄었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비교를 통한 구매 형태가 증가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대응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개성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기법의 컬러링과 새롭고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커트 스타일 또한 빠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내추럴 스타일과 이국적 느낌의 다양한 드레드스타일과 레게스타일등의 헤어 디자인과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친환경 염모제와 다양한 두피 모발 클리닉 제품, 편안한 시술을 받을수 있는 인테리어와 스파공간을 제공하고 웹사이트 2.0시대를 배경으로 헤어디자인과 다양한 뷰티시술 상품의 온라인 판매등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세대로 부상할 실버족에 맞는 대응 방법 또한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출장 시술 서비스, 점차 감소하는 모량과 두피 건강을 위한 맞춤 건강 케어 서비스등이 있겠다.

3) 밀레니엄 시대 신인류

90년대 보보스족에 이은 최근의 새로운 부류는 노노(No No's)족과 엑스(X's)족이다. 자신만의 가치와 근본에 가치를 두면서 No 로고, No 브랜드를 지향하는 노노족이 추구하는 것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이며 극단적이고, 과장된 것에 가치를 두는 엑스족은 보다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풍부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인류의 출현 속에 중산층의 소득은 상승하고 개인주의 가 심화되면서 상류층의 즐기던 쾌락 및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부나마 중산층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매스티지(masstige)³⁰⁾경향이 확대되기도 했다.

2000년대 초 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기존 가치관에 위배되는 다양한 양

30) '대중(mass)'을 뜻하는 단어와 '명품(prestige product)'을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조어 이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소개한 이 개념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경향'을 뜻한다. 『두산백과사전』

상이 대두 되면서 모순된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X, Y, N세대에서 P세대³¹⁾로 이어지는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문화가 각광을 받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기와 인터넷의 일상화는 젊은이 중심 문화의 사회내 파급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도 했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신인류는 X, Y의 다음세대라는 뜻에서 ZTPEO라고 지칭되는 Z세대 이들은 유행에 극히 민감하고 인터넷 게임과 랩음악을 좋아한다. 또한 힙합의상을 즐겨 입는다.

N세대는 디지털 문화의 핵심을 향유하면서 부모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을 영위한다, 현실공간보다 가상공간이 주생활 무대이다. 태어나면부터 디지털 미디어환경과 친화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하다.

M세대는 모바일 컴퓨팅을 주로 구사하는, 포스트N세대이다.

듀크족 (DEWK)은 맛별이를 해도 아이는 꼭 갖는다는 주의의 고소득, 고학력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FI족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몰두하면서 삶을 즐기는 자유주의자이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마련하여 혼자 생활하지만 독신주의자는 아니다. 삶을 즐기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두고 예술, 패션, 정보 등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 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유행을 창조하고 소비를 주도 하는 집단이다.

딘스족 (DINS)은 성생활 없는 부부를 가르친다 가정 및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예티족 (YETTIES)은 젊고, 기업가적이며, 기술에 바탕을 둔 인터넷 엘리트이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일에 있어서는 주말과 야간근무도 열심히 하는 열정을 보인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특징적이다.

딩펫족 (DINPET)은 둘만의 시간을 만끽한다는 면에서 딥크와 비슷하지만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자식처럼 키운다는

31) X세대는 1965년~1978년 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잇는 세대로 개성과 목표의식이 강하고 Y세대는 1979~1994년 출생한 세대로 소비 지향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낙천적이다. N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테크놀로지 에 익숙하다.(박창희, 「영상광고와 신세대 문화」 『인문연구논집 제6집』, 4, 2001, pp.99-121) P세대는 월드컵, 대선, 촛불시위 등을 거치며 나타난 세대로 사회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제일기획, 「마케팅 해부학 보고서 - 젊은 그들을 말한다.」, 2002)

점에서 다른점이 있다.

통크족 (TONK)은 TWO ONLY NO KIDS의 약칭으로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빼앗기던 전통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즐기는 노년층을 말한다.

파라싱글 (PARA SINGLE)은 일본에서 나타난 신조어로서 기생충 (PARASITE)과 독신(SINGLE)의 합성어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콘트라 섹슈얼 (CONTRA SEXUAL)은 콘트라와 섹슈얼의 합성어로서 결혼, 육아보다 고소득과 사회적 성공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여성을 뜻한다.

쿼터족 (QUARTER)은 기성세대의 사고와 행동에 걸리는 시간의 1/4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생겨난 사회학 용어로 성격이 급하고, 긴 문장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빠른 속도에 길들여진 세대를 말한다.

차브족 (CHAVE)은 저급문화의 발전형으로 길거리 패션의 긍정적 모습으로 쿨한 스타일의 대표가 되고 있다.

아나디지족 (ANADIGE)은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문명인 디지털이 불편하고 복잡하다고 느낀다.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부류이다.

인스피어리 언스족 (INSPERIENC)은 밖에서 하던 활동을 집으로 끌어드리는 부류로써 헬스시설, 스파, 홈바, 출장 등을 집안에 두거나 집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얼리어답터족 (EARLY ADOPTER)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항상 최첨단 하이테크 전자 제품에 관심을 가진다.

스탠딩족 (STANDING)은 TAKE OUT음식을 즐기며, 모바일, 포터블 제품 등을 즐겨 쓰고 콘서트 등에서도 서서 관람하길 즐긴다.

키덜트족은 아이와 어른의 합성어에서 유래된다. 성인 된 뒤에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감성을 잊지 못하고 완구류 등의 관련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보보스 족 (BOBOS)은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상류계급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경제적으로 많

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유지하면서 예술적 고상함을 향유하는데 힘쓴다.

매트로 섹슈얼 (METROS SEXUAL)족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성취향의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남성들을 뜻한다.

모모스족 (MOMOS) 보보스와 명품족의 반대급부, 겉치레에 신경 쓰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가짜라도 명품인 듯 한 물건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나이트쿠스 (NIGHTCUS)족은 올빼미형 인간의 유형으로 10-PM~ 2PM 까지 활발한 젊은층을 뜻한다. 편의점, 심야영화, 클럽, 24시 헬스클럽 등의 영업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다.

더피족 (DUPPIE)은 우울한 도시전문직 종사자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고소득 전문직을 회피하고, 소득은 적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이렇게 많은 라이프 스타일속에서 사람들은 한가지 스타일만을 보여주고 추구 하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 세가지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보스족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모모스족의 삶을 동경하고 키티들적의 소비취향을 갖기도 하는 식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2000년대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과 사회 속에서 조금더 미래화되고 SF영화속의 일들이 실현될 듯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따른 복고 경향과 자연파괴에 따른 에콜로지 경향으로 웰빙 트렌드가 나타나 개인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 하는 좀 더 개인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무리들 즉 새로운 종족들의 출현으로 삶의 방식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아래[표3-6]은 시대별 세대와 종족의 발생 시기, 군집요소를 분류 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별로 나타난 신세대와 종족을 알 수 있고, 시대별 라이프스타일의 흐름을 쉽게 볼 수 있다.

[표3-6] 세대별 종족별 분류³²⁾

세대별 분류	발생 시기	군집요소
x세대	90년 대 중반	65-76(80)년에 태어난 세대
Y세대 1318 or 밀레니엄 or 에코세대	1997년	13-18세
Z세대(트윈 세대)	2000년	어린이 (13세 이하 취학아동)와 청소년 사이의 연령층
N세대	2000년	청소년 및 대학생
M세대	2002년	청소년 및 대학생

종족별 분류	발생 시기	군집요소
히피족	1966년대	청년층
여피족	1980년대	20-30대
슬로비족	1990년	20-30대
딩크족	1997년	20-30대
이피족	1990년대	1965년 이후 태어난 고학력자
듀크족	1999-2000년	맞벌이 부부들
FI족	2000년 이후	20-30대
딘스족	2000년 이후	20-30대
에티족	2000년 이후	20-30대
딩펫족	2000년 이후	20-30대
통크족	2000년 이후	노년층
파라싱글	2000년 이후	젊은층
솔로족	2000년 이후	싱글 남성, 여성
콘트라 섹슈얼	2000년 이후	젊은 여성
쿼터족	2000년 이후	20-30대
차브족	2000년 이후	젊은 층
아나디지족	2000년 이후	연령불문
인스피어리 언스족	2000년 이후	20-30대
얼리어답터족	2000년 이후	최첨단 기능에 관심을 갖는 분류
스탠딩족	2000년 이후	젊은층
키덜트족	2000년 이후	성인 층
기크족 (오타쿠족)	2000년 이후	연령불문
보보스 족	2000년 이후	새로운 상류계급
매트로 섹슈얼	2004년이후	젊은 남성
지름족	2004년 이후	20대
모모스족	2004년 이후	젊은층
쇼핑 노매드	2004년 이후	젊은 층
나이트쿠스	2004년 이후	젊은 층
더피족	2005년 이후	젊은 도시전문직 종사자

32) 전소현,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Life style의 변화 와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의 TREND 체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2, p.70, 한국사회의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연구, 동아일보심층리포트, 2004.11

2. 복 식

밀레니엄시대 복식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복장으로 다양한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옷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퓨전 패션(Fusion Fashion) 발전되고 있다.

패션을 살펴보면 포멀웨어와 캐주얼웨어의 중간 형태인 타임리스웨어, 캐주얼과 스포츠의 퓨전인 캐포츠, 보다 캐주얼화된 매트رو 아웃도어 등 세 가지 퓨전시장이 새롭게 형성 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패션은 ‘Retro(복고)’ 열풍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개성 강한 60년대 풍과 80년대 풍이 패션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재미있게도 교차해특히 밀레니엄 시대 초반 등장한 FI족, 쿼터족은 유행을 창조하고 소비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스타일링이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연출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말이다. 2000년과 02년, 04년, 06년은 80년대 풍이, 2001년과 03년, 05년, 07년은 60년대 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패션 칼럼니스트 리사 암스트롱은 “패션은 극과 극이 맞닿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당시의 치열한 ‘전쟁’과 현재 ‘불황’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우아한 여성미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³³⁾

1)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1세기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기 보다 예전의 것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호하게 혼합된 스타일이 관심을 얻었고, 다양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개성있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천연소재 내추럴한 컬러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에서 정서적으로 편안한 교감을 얻으려고 하였다. 또한 변화된 서구 이미지와

33) 최보운, 60년대 복고의 습격 패션은 반복이다, 조선일보, 2007

이국적인 아시아 문화를 함께 믹스한 정적이고 장식적인 독특한 패션을 선호 했다. 복고풍에 따라 1950년대 로맨틱 패션 1960년대 미니멀리즘 1970년대 핑크 패션, 1980년대 맥시멀리즘등 다양한 스타일이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빈티지 패션이나 앤틱 스타일 등 시간과 스토리가 녹아 있는 제품은 고가의 패션이라 여기는 풍토가 생겼고, 진이나 스포츠 아이템 등 캐주얼한 스타일에 격식을 갖춘 재킷이나 가방을 함께 매치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2001년

2001년에는 주로 50년대와 80년대의 복고패션이 인기를 끌었다. 패션에서 복고(Retro)는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메뉴였다. 50년대의 복고패션은 밀리터리 룩이 주도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 유행을 예고했던 밀리터리 룩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세계 여성복으로 결정지워 졌다. 각진 어깨,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수트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은 완전히 실용적인 기능복이 되었으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인기를 끌었던 밀리터리 룩이 거리를 활보하였다. 밀리터리 룩은 신세대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1년엔 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소프트 밀리터리 룩이 주도한 추세였다. 루이비통, 프라다 등 패션브랜드들이 밀리터리 룩을 일제히 선보였던 가운데 국내 캐주얼 브랜드들도 밀리터리 패션 상품을 내놓았다. 밀리터리와는 상반되는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했던 뉴룩은 전쟁에 지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었다. 2001년에 샤넬 돌체 앤 가바나, 발렌티노 등 유수의 패션브랜드들이 이런 50년대 뉴룩을 차용하고 있었다.

80년대의 트렌드로 여피 스타일을 떠올릴 수 있다. 2001년에 와서는 이것이 보보스 패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의 패션경향은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밝은 이미지 보다는 80년대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서 섹시하고 현대적인 느낌이다. 블랙과 화이트 계열의 색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3) 2002년

2002년은 70년대의 에스닉과 히피풍 스타일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2001년까지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복고풍 디자인이 인기를 모으고 있었으나 자연주의 바람이 불면서 실루엣은 편안하되 반도시적이고 낮은 이미지를 가진 히피풍과 에스닉의 일상적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형태의 실루엣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민속풍의 집시의상이나 러플 프린지 장식의 인디안 동양풍의 의상이 유행하였다. 또한, 남녀공용의 청바지나 긴 머리를 통해 패션에 있어서의 성의 개념을 허물고 유니섹스 모드를 출현시켰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그 자유로움을 즐기려는 히피의 정신이 동양적이고 낮은 이미지의 에스닉 무드와 만나 ‘에스닉 히피 스타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에스닉 히피 스타일은 부드러운 실크와 시폰 등 다양한 소재와 회화적인 플라워 프린트, 러플, 개더, 셔링 등 각종 디테일로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인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크리스찬 디올은 아라비아 유목민의 의상과 군대에서 영감을 얻은 가방 그리고 멋진 모자가 달린 의상들을 내놓았다. 색색의 가죽 재킷과 트렌치 코트, 사선형의 실크 드레스자수가 놓여진 엘비스 재킷 등 이 모든 것이 에스닉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루이비통 또한 70년대 패션에서 영감을 얻은 의상이 대부분이었다. 긴 실루엣과 높은 허리선, 그리고 좁은 어깨의 옷 품새가 낭만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가볍고 가공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가슴 사이의 끈이 보일 정도로 깊이 파인 엠파이어 라인의 목둘레선과 레이스, 퍼프소매, 러플과 프릴 장식이 특징인 빅토리안 풍 블라우스는 1900년대 초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되살린 디자인으로 2002년 트렌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4) 2003년

2003년 패션 경향의 모티브가 된 것은 1960년대이다. 40년대, 60년대,

80년대의 여러 가지 패션들이 리메이크되어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60년대의 트렌드였다.

60년대의 패션아이콘인 재클린 케네디와 디 자이너 앙드레 쿠레주, 마리 퀴트 등의 영향을 받은 깔끔 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A라인이었는데, 여기에 60년대 당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영패션(Young Fashion)과 미니스커트, 팝아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이고 모던한 프린트도 재현됐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대담한 무늬의 사용, 강렬한 색의 배합과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 등 패션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2003년에는 모즈룩의 반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슬림하였다. 팬츠 슈트가 점점 좁아지면서 흐르는 듯 타이트한 라인을 만들어 비틀스 시절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기본형 스타일보다는 2버튼 슈트가 주류를 이루고, 슬림한 재킷에 일자형 팬츠로 복고풍을 반영하고 있다.

60년대를 떠오르게 하는 복고풍의 자연색 계열 색상이 많이 입혀 젖고 옷깃이 넓은 와이드 칼라가 실루엣을 한층 멋져 보이게 하였다. 여기에 슬림 팬츠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5) 2004년

춘하시즌은 옵티미스틱 페미닌 다양한 패턴과 프린트 물결, 컬렉션 기간 동안 프린트와 패턴이 등장했다. 디자이너들은 파스텔이나 브라이트 컬러의 믹스에 매료되었으며 플로럴과 기하학적인 모티브는 짧은 서퍼 쇼츠와 레이스 이브닝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레트로 클래식(Retro Classic)무 40~50년대 풍의 레트로 클래식을 좀더 부드러운 소재감과 현대적인 색감으로 새롭게 표현해냈다. 전반적으로 보다 성숙해진 분위기다.

노블 스포티브(Noble Sportive)무드 스포티 라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클래식과 리조트 영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편안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인의 노블 스포츠 룩이 제안됐다.

뉴 엘레강스(New Elegance)의 매우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가 심플

한 실루엣으로 연출됐다.

추동시즌은 전반적으로 70년대 풍의 빈티지나 50년대 스타일의 레이디룩 경향이 많이 선보였으며 중견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각 브랜드의 오리지널 스타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6) 2005년

모던 스타일의 어반 캐주얼 대두와 고전적인 유러피안 무드와 러시아 무드가 특징이라 하겠다.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과 액세서리는 중요 테마로 다뤄지며 전체적으로 모던한 스타일에 임팩트를 부여하는 요소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무드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며 은근하게 표현된 ‘어반 캐주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몇 시즌 지속되었던 레트로와 페미니즘은 새로운 무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웨어러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뉴욕 컬렉션부터 강조되었던 러시아 무드는 좀더 귀족적인 러시아로 전환되어 보여졌으며 쉬크한 모즈 룩(mods look)부터 부드러운 보헤미안 룩(bohemian look)까지 60년대 스타일이 주요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춘하시즌이 화려하고 다양한 패턴물들이 선보여졌다면 추동시즌은 블랙을 중심으로 어두운 컬러 톤이 대표적인 컬러 군을 형성하고 있고, 정제된 느낌의 그레이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어둡고 가라앉은 톤을 바탕으로 깊은 와인 컬러가 포인트로 제시되어 활력을 주었다.

7) 2006년

60년대 미니멀하면서 여성스러운 꾸레주룩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아이템에서 단연 부각되는 것은 드레스라고 할 수 있다. 미니멀한 꾸레즈 코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소프트한 A-line이 부각된다. 또한 쇼츠와 짧은 기장의 재킷을 매치한 leggy look(다리를 강조한 슬림한 룩)이 많이 보여졌다.

8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파워 우먼과 정제된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남성미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파워풀하고 야성적인 면이 많이 보이고 록앤롤

스타일의 글래머러스한 앤드로지니룩과 레트로 밀리터리 스타일이 특징으로 보여 진다.

지난 시즌 주를 이루었던 화이트 컬러는 오프 화이트나 에크루 계열의 컬러들로 대체되었고 블랙에 가까운 카키, 그레이, 브라운, 미드나잇 블루 등이 블랙과 매치되어 정제된 컬러웨이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화려한 골드 컬러가 포인트로 첨가되어 생동감을 살려주고 있다.

스키니한 실루엣의 팬츠와 긴 기장의 코트가 등장하며 소프트한 볼륨감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많이 보인다.

8) 2007년

80년대의 스포티하면서 글래머러스한 감성과 60년대 스페이스 에이지에서 보여졌던 퓨처리스틱(futuristic)한 감성이 큰 흐름을 형성한다.

블랙과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모노크롬과 주얼리에서 가져온 듯 한 깊이감 있는 비비드한 컬러들이 등장하며 80년대의 느낌을 고조시킨다. 페일 베이지와 그레이를 중심으로 한 뉴트럴톤이 차분한 느낌으로 등장하며 여기에 메탈릭 컬러가 더해져 퓨처리스틱(futuristic)한 느낌을 한껏 돋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파워가 주목받았던 80년대와 팬츠의 착장이 보편화되었던 40년대, 40년대의 리바이벌이자 YSL의 머스쿨린-페미닌룩이 전성기를 이루던 70년대가 중요하게 등장했다. 미니멀리즘에 대한 관심이 07/08 추동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간결한 실루엣과 디테일이 유지됐다.

블랙 컬러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며 쉬크하게 표현되고, 70년대 영향을 받은 비비드한 컬러가 포인트로 활용됐다.

9) 2008년

새로운 로맨티시즘에 대한 시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사랑과 자유를 외쳤던 70년대 히피 스타일이 다시 강조됐다. 그리고 에스닉 무드의 등장과 함께 오리엔탈적인 디테일이 새롭게 부각됐다. 컬러는 퓨어 화이트와 베이지를 중심으로 한 뉴트럴 컬러가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 터콰이즈, 핑크, 오렌지 등의 강렬한 에시드 컬러가 액센트로

첨가됐다. 뉴 로맨티시즘의 강세와 함께 가벼움이란 요소가 아이템과 스타일링을 진행하는 핵심으로 등장했다.

추동시즌은 굉장히 화려한 듯 하면서도 절제되고, 실용적이면서도 꾸밈리적인 터치가 풍기는 균형잡힌 미(美)를 추구했다.

2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는 빈티지 인플루언스를 믹스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과 브리티쉬 프레피에 바로크의 화려함을 믹스하여 경쾌한 걸리쉬 룩을 제안했다. High-end 지향의 보헤미안 룩으로 낮설면서도 시적인, 그러나 어둡지 않은 페미닌 스타일과 내추럴한 아웃도어 감성과 레트로한 70년대 스타일이 만나 컨트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다.

10) 2009년

S/S는 불안한 경제 요인 등 불분명한 현재 상황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실용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는 커머셜한 스타일링을 선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 요소에 정면으로 맞서듯 패셔너블 아이템과 화려한 디테일로 dressed-up하는 대조적인 성향이 공존한다.

순수한 근본과 자연으로의 회귀 욕구는 소박한 자연과 미완성의 모습을 닮아간다. 자연스러운 구김과 탈색의 워싱 기법으로 코튼과 실크를 매력적으로 탈바꿈했으며, 흐릿한 강염, 빈티지 플로럴,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패턴 등으로 잔잔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국적인 문화와 바람에 날리는 사하라의 모래 언덕에서 영감을 받은 낙원주의, 오아시스 같은 행복감을 엘리전트한 절충주의로 표현한다.

인도 스타일의 테일러드 재킷과 사과리 블라우스, 하렘팬츠, 극도로 부드러운 사루엘, 태양 빛의 골드 시퀸과 워싱된 스트라이프, 플로럴 프린트가 조화를 이룬 자유분방한 스타일

70, 8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실루엣과 원시 부족의 화려한 문화를 믹스하여 장식적인 새로운 드레스 업 스타일을 제안한다.

부유했던 80년대의 향수를 다시 불러 일으키듯 마돈나, 플래쉬 댄스, 폐임의 경쾌한 이미지와 스포티한 유틸리티 디테일이 컴백한다.

Fun한 감성과 재미있는 낭만주의가 믹스된, 마치 작은 도자기 인형들을 보는 듯한 젊은 감성의 로맨틱 클래식 스타일이 제안된다.

F/W시즌에는 서리가 내린 경제상황의 긴장감을 반영하듯 어깨는 각지고 날카로운 라인을 그리며, 마치 dressing up만이 이 얼음같은 상황을 헤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980년대는 high-and-low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트렌드로 떠올랐으며, 새로운 파워 우먼과 시크한 바이커, 글리터리 룩을 연출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감으로 대두되는 1940년대는 戰후, 상실감에 직면한 유럽과 미국 여성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들었던 엘레강스 룩에 영향을 받아, long-line의 매혹적인 레이디라이크 룩으로 제안되었으며, 고전적인 명화나 이국적인 왕실의 클래시시즘이 모던 부르주아를 위한 모티브로 활용된다.

컬러에서는 블랙과 그레이가 다시 come-back 했으며, 레드, 핑크, 퍼플, 블루 등 전형적인 액센트 활용 외에는 안정감있는 다크 컬러와 페일 톤이 주류를 이루었다. 프린트에도 블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80년대 풍의 도트, 애니멀 프린트 및 직선, 곡선의 모던한 복합구성이 강한 인상을 준다.

11) 2010년

S/S는 80년대의 파워 우먼, 글램 룩과 40년대의 우아한 레이디 라이크 룩에서 에너지와 위안을 얻었던 추동 시즌을 지나, 안정을 되찾고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근본의 성찰이 되살아난다. 거품경제와 소비사회의 일시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엘레강스와 헤리티지, 그리고 실용적인 데이웨어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공학적인 미니멀리즘은 섬세한 드레이프와 만나 절충적인 엘레강스로 변화하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로맨티시즘은 좀 더 성숙해진 센슈얼리즘으로 표현된다. 다시 시작된 미래를 향한 도전은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여 실용적인 어번 밀리터리 룩으로 제안되며, 행복한 시절의 향수는 지속적인 희망을 불러 일으켜, 아메리칸 헤리티지 요소들이 다채롭게 활용된다. 혁신과 디자인에 대한 욕구, 새로운 창조를 위한 활력은 스포츠

소재와 포멀 룩의 실용적인 조화를 이끌어 내며, 글램 룩에 응용되었던 에스닉 컬러도 모던 스포츠 룩으로 탈바꿈한다.

<표3-8>은 2000s/s~2010s/s까지 트렌드 무드를 표로 정리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밀레니엄시대 전반적인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연구분석표3-1] 시즌별 트렌드 무드

시 즌	무 드	
	s/s	f/w
2000	• 로맨틱 페미닌 • 레트로 '80 • 엑조틱-라틴 • 핑크	• 맥시멀리즘 • 로맨틱 페미닌 • 미니멀리즘 • 매니쉬, 스포티브
2001	• 레트로 '50 '80 • 밀리터리	• 레트로 '80-여파 • 밀리터리 • 빈티지 • 그랜지
2002	• 스위트 로맨틱 • 레트로 '70-히피 • 에스닉	• 로맨틱 • 레트로 '70 • 글램룩
2003	• 페미닌 • 레트로 '60 • 콤팩트 • 믹스&매치	• 레트로 '60 • 모즈룩 • 에스닉
2004	• 페미닌-낙천주의 • 레트로 '50' s • 뉴 엘레강스	• 빈티지 '70 • 레이디 룩 '50
2005	• 어반캐주얼 • 페미닌 • 레트로	• 러시안 무드 • 유러피안 무드 • 레트로 '60-모즈룩 보헤미안 • 페미닌
2006	• 레트로 '60-꾸레주룩 • 레기룩	• 레트로 '80-파워우먼 • 레트로 밀리터리 • 엔드로지너스
2007	• 레트로 '80-글래머러스, 꾸레주룩 • 레트로 '60-퓨처리스트	• 미니멀리즘 • 복고 '70 '80
2008	• 뉴 로맨틱 • 레트로 '70-히피 • 에스닉 & 오리엔탈	• 레트로 '70 '80 • 빈티지 • 페미닌
2009	• 스트리트 '80 • 언플러그드 라이프 • 엑조틱 • 레트로 '70 '80 • 걸리쉬 스타일	• 레트로 '40 • 레트로 '80-섹시룩 • 엘레강스 룩
2010	• 레트로 '40-레이디 라이프 룩 • 레트로 '80-글램룩 • 스포티즘 • 로맨틱-그랜지	



<그림3-1> 2000 파리컬렉션³⁴⁾



<그림3-2> 2001 파리컬렉션³⁵⁾



<그림3-3> 2002 파리컬렉션³⁶⁾

34) 김수영외 2명 「베르사체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9권 2호』 vol.9 No.2, 2009, p.39

35) 김소정 「Mix & Match Style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2007, p.22, p.25



<그림3-4> 2003 파리컬렉션³⁷⁾



<그림3-5> 2004 밀라노 컬렉션³⁸⁾

출처 (어패럴뉴스)



<그림3-6> 2005 밀라노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36) 김소정, 전계논문, p.28 p.31

37) 김소정, 전계논문, p.34 p.37

38) 어패럴뉴스, 2003년 10월 27일, 12면 01번째 기사



<그림3-7> 2006 밀라노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3-8> 2007 밀라노컬렉션³⁹⁾
출처 (어패럴뉴스)



<그림3-9> 2008 밀라노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

39) 어패럴뉴스, 2006년 10월 23일, 14면 , 2007년 03월 12일, 12면



<그림3-10> 2009 밀라노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



<그림3-11> 2010 밀라노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

제 2 절 밀레니엄시대 헤어디자인

1. 헤어디자인 트렌드

2000년대 초반의 헤어스타일은 90년대 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발달 하였던 헤어컬러링은 계속 유행을 하였지만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적색은 줄어들고 밝은 색조가 각광을 받았다. 투톤 컬러링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차가운 잿빛 브라운과 블루, 금빛 브라운과 잿빛 브라운의 조화가 클래식한 신비스러움을 연출하였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미디엄커트가 선보였다.

에스닉 무드와 함께 다양한 연출되던 아프로 스타일이나 웨이브 스타일 또한 계속 유행발전하여 길이를 연장하는 익스텐션과 레게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익스텐션과 레게머리는 기존의 단순함을 피해 과감하고 새롭게, 때론 색실로 때론 컬러풀하게 연출했다. 이것은 밀레니엄시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뉴 라이프스타일의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도 관계가 있다. 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있는 20, 30대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헤어스타일의 경향은 은은한 갈색의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 하게 되었다. 앞머리의 직선라인의 뱅스타일은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과 가볍게 레이어드된 형태와의 혼합으로 양면적인 느낌의 스타일을 나타냈다.

2001년 세계적인 트렌드는 텍스처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발은 매트하고 딥수룩해졌다. 블론드 골드 톤으로 따뜻하게 표현되었고 어두운 색상에는 진하고 따뜻한 느낌의 레드와 브라운 색이 사용되었다. 디스 커넥션 테크닉을 사용하여 길이에 장단을 주고 클래식하면서도 첨단 의 느낌을 살린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예는 로맨틱 페미닌 무드와 히피 스타일이의 영향으로 편안하고 여유있는 느낌을 주는 루즈 스타일과 가벼운 샹기스타일의 헤어 가 유행을 하였다. 신경쓰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내추럴 스타일과 옅은 브라운 칼라의 굵은 웨이브의 롱스타일 혹은 생머리가 유행하였

고, 시원하게 얼굴형을 드러내는 쇼트 스타일까지 다양한 길이의 스타일이 유행을 하였다.

2004년은 엘레강스와 페미닌무드의 추세 속에서 불필요한 볼륨과 장식들이 사라지고 긴 모발과 내추럴 웨이브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복고의 열풍은 헤어 스타일에도 반영되어 60년대 스타일의 앞머리를 강조한 스타일들이 강세를 이룬다.

이 시기는 웰빙 트렌드가 서서히 헤어 스타일에도 반영되어 헤어 컬러링을 서서히 줄이고 내추럴한 세미롱 스타일과 둥근 형태의 머쉬룸 보브 스타일을 하게 되었다.

2005년도는 탈모와 두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해였다. 모발관리 서비스, 클리닉 제품, 가발등 탈모와 두피 시장의 규모 커지고 웰빙 바람으로 인해 자연성분과 한방성분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소비자들이 염색, 펌 등을 지양하게 되었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럭셔리한 이미지를 강조한 로맨틱 무드는 가볍고 내추럴한 질감을 바탕으로 섹시한 로맨틱 웨이브를 60년대 영화배우를 연상하게 하는 앞머리 스타일은 '인형같은 큐트함'을 뒷부분에 볼륨감을 준 풍파두루풍의 헤어스타일은 여배우를 연상 시켰다.

2006년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패션 트렌드는 80년대 스타일로 회귀하여 고급스러운 소재 한층 무겁게 느껴지는 중후한 색감과 함께 블랙컬러가 시즌의 주요한 컬러로 조명 된다.

주요 흐름이었던 가벼운 질감의 레이어 헤어스타일이 2006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스타일 변화를 통해 미디움 원랜스 또는 미디움 로우 그라데이션 스타일로 변화를 겪고, 미디움 길이의 원랜스 스타일을 단정히 연출하거나 또는 굵고 탄력 있는 웨이브를 귀밑으로 볼륨을 주어 연출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부여했다. 또한 비대칭적인 컷트 터치와 샤프한 실루엣또한 특징적이다.

2007년은 미니멀리즘과 복고트렌드 속에서 심플한 보브스타일과 60년대 루즈한 웨이브, 무거운 컬러 내추럴하게 마무리된 완만한 컬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보여준다.

2008년 내추럴하게 흐르는 헤어와 형클어진 듯 한 손질로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 비대칭적인 헤어스타일은 더욱 포멀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부드러운 느낌의 빗질하지 않은 듯 한 웨이브 헐렁한 머리가 가슴이나 그 보다 길게 늘어뜨려졌고 복고의 경향은 여전이 나타나 크고 강한 릿지 웨이브도 각광을 받았다. 캐주얼한 올림머리에서 빠져나오거나 떨어진 일부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헤어또한 많이 연출 되었다.

2009년 전반기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헤어 깔끔하게 정리된 하나로 말아 묶은 형태와 자연스러운 긴 생머리에 앞머리를 잘라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아하고 클래식 하지만 발랄한 느낌의 물결 웨이브 헤어밴드와 핀으로 포인트를 주어 귀여운 느낌을 준 스타일과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한 헤어로서 깔끔한 세미 보브 스타일과 앞머리는 사선으로 넘겨 여성미 강조한다. 성숙미를 강조한 볼륨 펌으로 연출한다. 보헤미안 댄디 스타일또한 각광을 받는다.

인터패션 플래닝의 2009년 뷰티 트렌드와 헤어디자인트렌드에서는 2009년 후반기 트렌드로 80년대 복고 흐름을 예상했다. 비대칭적인 스타일과 캐주얼한 고수머리 스타일 다양하게 땡아올린 시농스타일 히피적 느낌의 핑거 웨이브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림3-12>



<그림3-12> 2009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

그러나 현재는 트렌드가 명확하게 정해져 트렌드로 자리 잡는 시대 라기 보다는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도록 연출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 헤어디자인 유형 분류

1) 헤어 디자인 유형

(1) 2000년

아모스 헤어컬렉션 2000에서는 두발과 얼굴 윤곽의 차이를 감안해 제작한 한국인에 맞는 스타일을 제시한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테마는 ‘FEATHER 였다.’ 커팅 아웃 ‘이라는 컷트 기법으로 텍스춰에 가벼움을 표현는 트렌드를 발표한다.<그림3-13>

이철헤어커커 2000s/s 뉴 트렌드에서는 불규칙적인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고 다시 투톤으로 염색하여 사이버 분위기의 색상의 연출과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내추럴 브라운으로 컬러링을 하여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도록 처리한 후 슬라이싱기법과 디스커넥션 컷트 기법을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호트러짐을 나타내는 스타일링을 제시했다.<그림3-14>

박승철헤어스튜디오 2000 s/s 뉴모드 에서는 패션 경향을 헤어스타일에 반영해 금발과 자연스런 적색, 밝은 갈색, 녹색 등을 기본 컬러로 가벼운 레이어 컷트를 선보였다.<그림3-15>

모즈헤어(mod's hair)에서도 뉴 라인 젤다(ZELDA), 일렉트라(ELECTRA), 린(LYNN)을 소개했고 회색계열의 유행 컬러와 모발끝을 세밀하게 다듬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스파니엘 미디움 보브 컷트기법을 소개 했다.

레브론도 역시 ‘라벤다 위먼’의 4개 트렌드인 딜라이트와 록포, 세비지, 아이즈 등 4개 스타일을 소개 하면서 짧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되 스크런치 기법을 부분적으로 이용해 거친 질감을 강조했다.<그림3-16>

(2) 2001년

아모스 2001 ‘레이브 베리에이션’ 에서는 80년대말 핑키 록은 21세기 젊은이들의 모임인 레이브로 전환되어 패션을 뛰어 넘는 문화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아모스 레이브 스타일은 과거 디스커넥션 컷이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모더니즘의 성향으로 승화되고 있다.<그림3-17>

박승철헤어스튜디오 2001 가을·겨울 뉴 모드에서는 균형과 조화미 살린

대칭형 제안하였고 레이어컷 중심 테마에 구리빛·밝은 갈색 도입하였다.<그림3-18>
 박준 미장 2001 F/W 트렌드에서는 불균형의 조화 '과거로의 회귀'를 주제로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이미지를 가미시켜 전체적으로 패미닌한 느낌의 곡선미를 부각시키되 좌우 비대칭을 시도해 불균형의 조화를 시도했다. 이른바 '과거로의 회귀'다. 디스커넥션. 포인트 컷. 슬라이싱 기법 도입하였고, 헤어컬러는 원색보다 두세가지 이상이 색상을 혼합,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이미지를 풍기게 했다.<그림3-19>

로레알 F/W 컬러 트렌드에서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는 F/W 컬러 트렌드로 브라운과 블랙을 제시했다. 또한 투톤테크닉을 이용한 스타일을 제안하였다.<그림3-20>

비달사순 크리에이티브 팀은 수많은 헤어스타일이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장발의 남학생을 연상시키는 ‘스쿨보이 밥’ 과 부풀려 세운 앞머리가 특징인 ‘퀴프’ 스타일, 풍성한 웨이브가 특징인 ‘글래머 룩’ 이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쿨보이 밥’ 은 고전적인 보브 스타일과 달리 머리끝을 일자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자르고 앞머리는 길게 옆 가리마를 타 늘어뜨리거나 귀뒤로 살짝 넘겨준다. ‘퀴프’ 스타일은 올해 강력한 유행 패턴인 80년대 패션의 산물로 앞머리를 최대한 부풀려 세운 헤어 스타일. ‘글래머 룩’ 은 어깨에 닿는 긴 단발부터 롱 헤어까지 주로 모발의 자연스런 질감과 풍성한 볼륨을 다양하게 표현한 스타일이다. 비달사순 팀은 화려한 80년대 스타일인 글래머 룩을 연출하기 위해 ‘언더니스 펌’ 을 제안, 표면의 모발은 놔 둔채 안쪽의 모발만 웨이브를 주어 볼륨을 살리고 모발의 독특한 질감을 살려내도록 했다.

슈바츠코프 헤어트렌드에서는 첫번째가 글로스 화이트,두번째가 비비드 스마일, 세번째가 리트로 엘레강스, 그리고 립스틱 러브라는 이름으로 칼라 트렌드를 제안했다. 컬러와 스타일이 강조되는 쇼트&미디엄 생머리에 블루블랙의 강한 컬러가 쇼트 스타일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고 레트로 엘레강스적인 80년대 영화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브라운계열의 웨이브와 스트레이트 트렌드를 제시 하였다.<그림3-21>



<그림3-13> 2000 아모스
출처 (www.jangup.com)



<그림3-14> 2000 이철헤어커커
출처 (www.jangup.com)



<그림3-15> 2000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jangup.com)



<그림3-16> 2000 레브론
출처 (www.jangup.com)



<그림3-17> 2001 아 모 스
출처 (www.jang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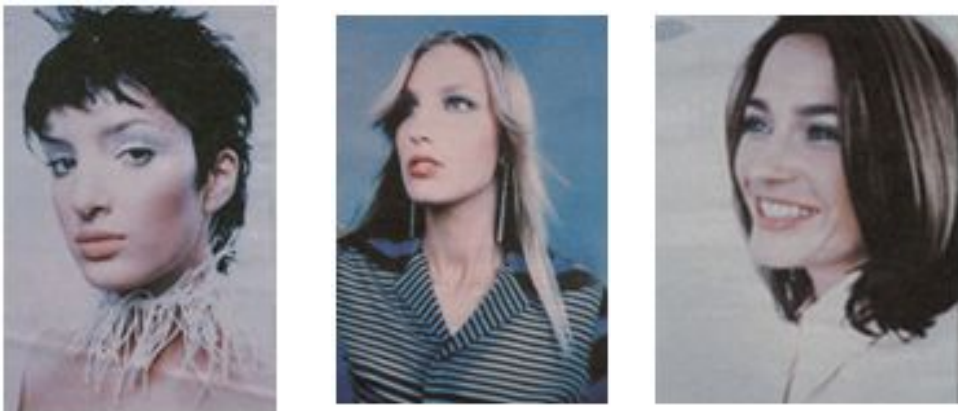
<그림3-18> 2001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jangup.com)



<그림3-19> 2001 박준 미장
출처 (www.hairnice.com/news1)



<그림3-20> 2001 로레알
출처 (www.hairnice.com/news1)



<그림3-21> 2001 슈바츠코프
출처 (www.hairnice.com/news1)

(3) 2002년

2002년 아모스 컬렉션에서는 핑크룩과 히피룩을 선보였으며, 'Free'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자유로운 영감을 헤어에 접목시킨 뉴모드를 선보였다.

박승철헤어스튜디오는 2003년도 봄·여름 헤어트렌드에서는 언밸런스&블러드(unbalance&blood) 70~80년대 복고풍의 물결이 더욱 화려하고 강렬하게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헤어컷에서는 언밸런스 스타일을, 헤어컬러에서는 동색과 보색을 이용한 다양한 컬러가 유행하는 가운데 특히 레드 계열이 강세를 띠는 것으로 내다봤다.<그림3-22>

박준미장에서 제안하는 '2002 유행트렌드'에서는 80년대 디스코의 영향을 받아 열정적이고 충격적인 형태인 이번 트렌드는 특히나 밝고 현란한 느낌과 함께 글래머러스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튀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길이에서 긴 길이까지 다양한 이번 스타일은 주로 비대칭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레이어링된 커트에 질감표현을 강하게 했으며 커트기법으로는 언더커트가 사용됐다. 컬러는 밝거나 어두운 것으로 강하면서도 샤프하게 표현했다.<그림3-23>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2001/2002 F/W 컬렉션에서는 에스닉적인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2002 레드켄 가을/겨울 트렌드에서는 레드켄은 로레알코리아가 로레알 프로페셔널, 케라스타즈에 이어 국내에 3번째로 선보이는 두발화장품 전문 브랜드이다. 이날 글로벌 아티스틱 디렉터 크리스&크리스 팀이 발표한 2002년도 가을·겨울 트렌드는 Ripped, Ragged, Torn 으로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고 찢겨져 나간 듯한 이미지의 스타일들이 주를 이뤘다.

(4) 2003년

아모스프로페셔널 2003 뉴 트렌드 모던 미스(Modern Myth)는 인류의 미가 시작됐던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신화 속 인물의 부활을 테마로 한 트렌드다. 부드러운 웨이브 텍스처로 표현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크림이 브라운의 무료함은 강렬하고 화려한 액센트 컬러로 바뀐다.<그림3-24>

웰라코리아는 2003년 과거에 바탕을 둔 미래 창조를 테마로 에너지 넘

치는 엔틱스타일(Energizing Antiquity)과 신비로운 로맨틱 스타일(Eccentric Romantic), 그래픽 엘레강스 스타일(Graphic Elegance) 등 3가지 트렌드를 제안했다. 모발은 형클어져 특정 스타일을 표현하지 않고 나부끼며 느슨하게 묶거나 모자처럼 머리를 매끄럽게 감싸고 있다. 헤어 컬러는 짙은 에쉬 또는 매트한 붉은 브론즈, 금발 등 자연스러운 컬러가 제시됐으며 빛의 반사로 인해 화이트를 띄는 컬러의 변화가 독특하다.<그림3-25>

자크데상주 F/W 헤어모드에서는 봄과 여름 모드가 볼륨감을 가지고 얼굴 주위를 자유스러운 뿌리형태와 별처럼 얹히게 한 웨이브였다면 이번 모드는 오리엔탈리즘과 복고스타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했다. 완벽한 달걀 모양을 따르는 헤어컷으로 클래식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리 밀러, 부드러운 곡선 안에서 이루어진 관능성 있는 네모난 단발로 활동성과 지성미를 강조한 룰루, 불안정하지만 질서 있고 자연스러운 깃털 모양의 페더컬(Feather Curl)로 볼륨을 준 섹시미를 강조한 그뤼오를 발표 하였다.<그림3-26>

비달사순 2003 봄/여름 헤어컬렉션에서 상반된 느낌의 대비를 모티브로 탄생한 '미드나잇 캔디'를 제시했다. 록시는 강렬하면서 고혹적인 느낌의 스타일. 무거운듯한 느낌의 프린지가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 주며 부드럽게 레이어드되 가벼운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잿빛 갈색 컬러링으로 컷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엔젤은 흐르는 듯하면서도 비대칭적인 조형미가 한껏 묻어나는 스타일. 흩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층진 머리와 다듬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컷한 라인이 특징이다. 크레스트 부분 전체에 어두운 모카 브라운으로 컬러링하고 더욱 어두운 브라운으로 외곽부분을 컬러링해 모발의 윤기와 깊이를 강조했다.<그림3-27>

프랑프로보 2003 헤어트렌드에서는 금빛 컬러를 중심으로 색조를 이용해 입체감과 윤기를 전달해주는 헤어스타일 제시했다. 레이어드된 컷과 질감처리를 통해 연출된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선명한 금빛컬러와 모카 컬러가 멋진 조화를 이룬 '모카 스타일'과 모던한 느낌의 '베이비 블론드', 달콤한 초콜릿 컬러가 모발에 윤기를 더한 '번 루미에르'등 3가지 스타일로 제시됐다.<그림3-28>

장 끌로드 비긴 2003헤어 트렌드에서 록앤롤 애티튜트(Rock n Roll

Attitude)풍의 인위적이지 않은 웨이브를 선보였다. 모발 끝 부분에 광범위하게 밝은 하이라이트를 줘 생머리의 단조로움을 탈피한 록커 스타일, 모발의 질감을 순수한 상태로 디자인하기 위해 레이저 커트한 스타일, 눈썹을 따라 앞머리를 만들되 자연스러운 퍼머로 인위적이지 않은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 그리고 빅 뱅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3-29>

모즈헤어 제안 2003 봄·여름 트렌드 이번 시즌 모즈헤어는 소녀다운 스타일을 뉴 헤어모드로 선보인다. 미니스커트와 짧은 팬츠를 입어도 섹시해 보이지 않고 단지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준의 느낌을 주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헤어커트는 눈을 가릴 정도의 긴 앞머리가 특징이고 속머리의 불규칙한 단차가 곁 머리와 겹치면서 가벼움을 표현해 주는 커트 기법이 주류를 이루고 헤어컬러 역시 내추럴하되 커트의 질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미묘하게 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뉘앙스와 움직임 주었다.



<그림3-22> 2002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http://news.donga.com/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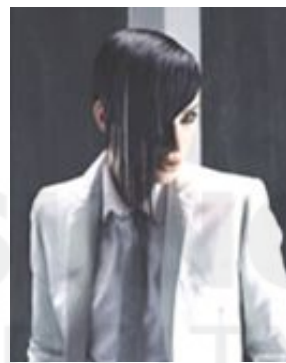


<그림3-23> 2002 박준미장

출처 (<http://www.hairnice.com/news1>)



<그림3-24> 2003 아모스
출처 (www.jangup.com)



<그림3-25> 2003 헬 라
출처 (www.jangup.com)



<그림3-26>⁴⁰⁾ 2003 자끄데상쥬
출처 (www.jang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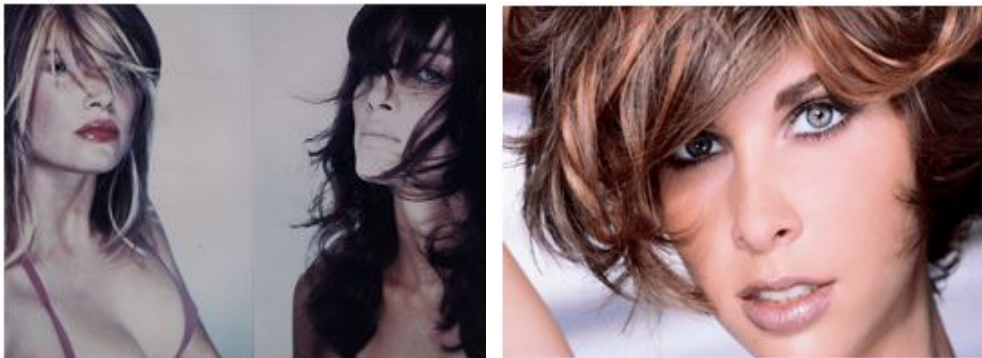
40) <http://www.jangup.com/detail.php?number=25418&thread=11r01>



〈그림3-27〉 2003 비달사순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28〉 2003 프랑크 프로보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29〉 2003 장 끌로드 비긴
출처 (www.jangup.com/popup)

(5) 2004년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2004 S/S 트렌드인 ‘Spiritual Energy’ . 이는 ‘침체되고 경직되어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돌아보는 현대인의 정신 세계에 힘을 불어 넣어 주는 빛의 에너지라는 뜻’ 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6가지 색상으로 표현된다. 이번 트렌드에서 ‘Spirit’ 은 “생명, 마음, 정신” 을 의미하며, ‘Energy’ 는 이러한 정신 세계에 빛을 불어 주는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번 트렌드에서 보여지는 주요 색상은 Spiritual Red, Spiritual Yellow, Spiritual Green, Spiritual Blue, Spiritual Purple, Spiritual Sepia 등이 있다.<그림3-30>

박준뷰티랩은 내추럴리즘과 페미니즘에 사회적 현상을 가미해 다양한 감정을 창조하는 '이모셔널 코드(Emotional Codes)'를 제안하고 '페미닌' '심플' '모던 큐트' 등 각 주제별 헤어 스타일을 제시했고 볼륨과 과장을 뺀 간결한 라인의 헤어스타일과 바이올렛, 브라운 퍼플, 레디시 퍼플 등 고급 스런 느낌의 다크 무드 색상을 함께 선보였다.

웰라 Trend Vision2004 에서는 복고 트렌드를 이어 전통의 재발견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 질감에서 부드럽게 처리하여 히피적 감성을 표현 하였다. 섬세한 위빙 컬러링과 슬라이싱테크닉을 이용한 가벼운 컷트가 다양한 표현과 함께 비대칭적 조화주는 트렌드를 발표했다.<그림3-31>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는 가을과 겨울 헤어트렌드로 '빈티지 앰버(VINTAGE AMBER)'를 제시하고 커트 사이의 경계가 흐리도록 깃털처럼 표현한 '시크릿 룸'을 비롯해 부드러운 단일톤 아래 골든 브라운 트리오가 강조된 롱헤어 '컨피덴셜 클럽',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룩으로 더블 커트 효과를 보여주는 '프라이빗 가든' 등을 선보였다.

장 끌로드 비긴은 2004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긴 생머리, 빅뱅과 조화를 이룬 눈부신 금발, 단발의 발레이야쥬에서 ‘글래머러스’와 ‘섹시’한 분위기의 70년대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다.<그림3-32>

장 끌로드 비긴 04-05f/w 컬렉션에서는 과장되지 않은 볼륨과 다양한 스타일링 기법을 혼합하여 표현함으로써, Glamour와 Post Pop 두 가지 LOOK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전체적인 길이는 베이스 컷 위에 끝을 가

늘게 빼주는 기법인 ‘에필라주’ 를 해준 모발을 포개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짧은 모발에서부터 긴 모발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3-33>

(6)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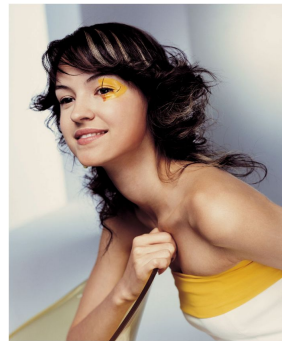
아모스는 획일화된 사회 트렌드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 탐닉하는 개인의 코드를 표현한다. 복고주의 영향으로 5,60년대 볼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레트로와 페미닌 무드로 뿌리부터 살아나는 볼륨과 탄력있는 웨이브 블론드 컬러가 특징적이다.<그림3-34>

2005 박준의 S/S Hair trend에서는 인간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과 계절의 특성을 살려 감각적인 스타일을 부각시켰다. 전체적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을 표현했으며 봄과 여름에 걸맞는 화사한 컬러로 헤어연출을 시도했다. radiant은 왼쪽 선에서 오른쪽 선 끝으로 기본라인에 슬라이싱 컷으로 질감처리. 무게감을 덜하고 밝게 브릿지된 기본 베이스 위에 샤벳 브라운과 속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블렌딩된 투톤 컬러링을 연출하였고, impressive는 콘로우와 피스를 이용해 화사한 봄 여성의 로맨틱함을 살렸다. 탑은 심플한 콘로우로 처리하고 밝은 옐로 컬러의 피스가 이어 라인의 곡선과 함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여 봄의 여신의 당당함을 표현하였다.<그림3-35>

웰라 트렌드는 로맨틱시즘의 표현으로 여성스러움의 표현이 특징이다. 엘레강스와 로맨틱한 느낌의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웨이브와 강한 컬러링 그리고 짧아진 헤어가 특징이다.<그림3-36> 로레알은 불타는 듯한 강렬한 레드와 불규칙함. 야성적인 스타일과 풍부한 볼륨감의 표현과 금발의 강한 야성미가 부드러움과도 조화되어 마법처럼 몽롱한 분위기를 표현했다.<그림3-37>

자끄데상쥬 2005 S/S 헤어트렌드에서는 지난 15년간 칸느 영화제를 통해 복고풍에 해당하는 노스탈 식을 선보여온 자끄데상쥬는 기존의 컨셉을 파기하며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글램록' 스타일을 선보였다.밥 상폴레는 ‘손질한 듯, 하지 않은 듯한(쿠아페 데쿠아페)’ 스타일을 한 프랑스의 유명가수 바르탕의 연출법이며 커트가 리믹스된 색상 때문에 매우 가볍게 표현되고 있으며 자유와 와일드한 느낌까지 더했고 록커의 영혼은 반항적

인 헤어와 머리 끝부터 살려준 볼륨이 특징으로 깔끔한 듯 하지만 불규칙한 끝부분은 이 커트에 리듬을 주었다. <그림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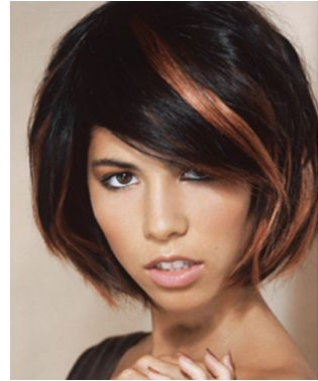
<그림3-30> 2004 아모스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1> 2004 웰 라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2> 2004 장폴로드 비긴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3> 2004 장끌로드 비긴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4> 2005 아모스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5> 2005 박준뷰티랩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6> 2005 웰 라
출처 (www.wella.com)



<그림3-37> 2005 로레알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38> 2005 자끄데상주
출처 (www.beautynury.com/bnh)

(7) 2006년

아모스는 이국적 문화의 혼합과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감성과 재미있고 엽기적인 표현을 하였고 귀밀에서 시작되는 웨이브 볼륨이 특징이다.<그림3-39>

2006 Hair Trend by 박준뷰티랩에서 Goddess of Mediterranean는 긴 머리 레어어에 바람과 태양의 모든 기운을 흡수한 듯한 강한 웨이브의 뿔지가 인상적이고 Champion of Liberty는 여성스러움보다는 보이시한 느낌을 살리며 Top, Side, Back 부분에 거친 표현을 위해 샤크컷으로 질 감처리를 하였고 내추럴 브라운을 바탕컬러로 부분 하이라이트를 주어 리듬감과 생동감을 부여했다.<그림3-40>

박승철헤어스튜디오는 s/s시즌에 미니멀리즘 영향을 반영한 네오 미니멀리즘을 제시 했다. 1990년대의 여성스러움을 없애고 지난해 유행했던 러시아풍의 화려한 컨셉에서 미니멀리즘을 가미해 최대한의 절제미로 화려함을 한 톤 낮춘 것이 특징이다. 비대칭 느낌을 강조해 샹기감과 공기감있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는 패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곡선보다는 직선, 단순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어우러지게 표현했으며 얼굴선 쪽은 무겁지만 뒷부분은 자연스러움을 더욱 강조해 양쪽에 비대칭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율동감있는 스타일이 특징이다. 헤어 컬러는 밝은 색상에서 언더 섹션으로 갈수록 어두어지는 그라데이션 기법과 슬라이스 테크닉을 이용 톱 포인트 또는 골덴 포인트 부분에 보이시한 느낌과 양쪽의 비대칭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도와 색상을 달리 해서 표현했다.<그림3-41>

F/W시즌은 독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현 시대에 걸맞게 어느 한 시대의 모습이 아닌 전체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70~80년대의 레트로 패션 트렌드나 60년대의 볼륨을 살린 보브 스타일, 그리고 40년대의 극도로 여성스러운 클래식함과 20년대의 우아함을 살린 다양한 복고 느낌을 사선으로 처리한 앞머리와 다양한 길이의 컷을 이용해 모던하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다.<그림3-42>

Lee Kyung Min foret 은 에심메트릭의 비대칭적인 터치로 모던함을 강조하며, 세련되고 매혹적인 분위기 연출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스타일리쉬 헤어와 60년대의 복고적 분위기의 동양 전통 스타일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변형된 업스타일을 제안했다.<그림3-43>

웰라트렌드 자연주의 영향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특징으로 다소 과장된 형태와 다양한 길이감을 표현하고 있다.<그림3-44>

로레알 펴 컬렉션 슈팅에서는 up과 down이라는 이미지를 헤어 스타일링에 접목하여 패션 & 펴스타일링의 토탈룩을 제시하였다.<그림3-45>

쟈끄데상쥬 2006년 트렌드에서는 일상의 태양광 아래 마치 조명을 받은 여배우 같은 느낌의 여인을 연출한다. 흐트러진 듯한 느낌의 그 유명한 데상쥬 터치는 현대적 느낌과 어번 시크 스타일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그림3-46>

비달사순 2006 헤어트렌드 '뱀프'에서 샤프하고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유혹적인, 장단발이 섞인 불규칙한 헤어에 정교한 라인의 앞머리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진한 밤색과 진한 커피색 그리고 연한 브론즈색의 따뜻한 무드에 차가운 블루와 남색 그리고 암록색으로 절제된 차가움을 더한다.<그림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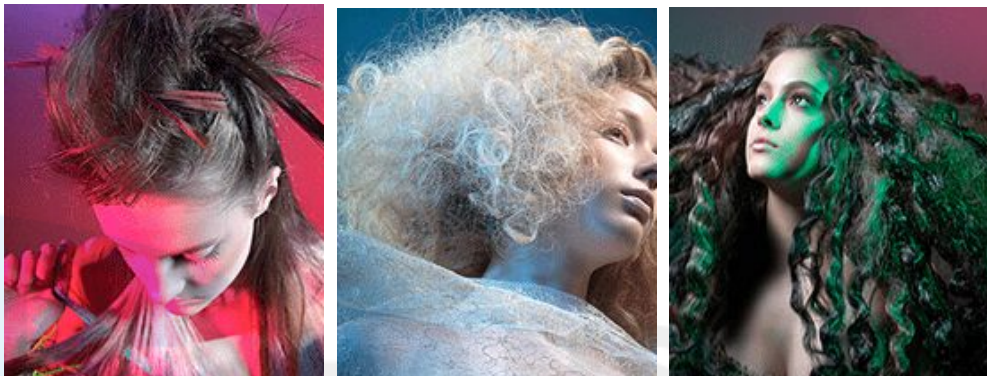
(8) 2007년

아모스는 단순함&투명함, 로얄무드의 간결화, 새로운 에스닉 무드로의 관심, 팝아트 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심플한 보브스타일과 60년대 루즈한 웨이브, 무거운 컬러가 특징이다.<그림3-48>
웰라는 06년 과 같이 자연주의 영향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관능적 아방가르드 무드로 길어진 길이감과 스트레이트를 강조한 단아한 느낌을 살린 무거운 형태가 특징이다.<그림3-49>

로레알 07 S/S 헤어트렌드 '누디티'에서는 피부와 완벽히 톤온톤(tone on tone)된 환상적인 모발을 컬러를 보여준다.<그림3-50>

쟈끄데상쥬 07 S/S 헤어트렌드에서는 강렬하거나 은은한 태양빛 아래 살아나는 풍부한 컬러와 미풍에도 가볍게 흔들리는 신선한 감각의 흐트러진 커트가 더욱 감각적인 이번 시즌 스타일을 연출한다. 구리색과 황금색의 반사빛과 잉카 브라운, 카푸치노 브라운, 골드 브라운을 헤어 컬러로 제시하나다.<그림3-51>

프랑프로보가 제안한 2007년 컬렉션은 'PARIS Cabaret(파리 카바렛)'에서는 기하학적인 단발인 'Janet', 짧은 블런트 단발 'Louise', 직선적이지 않은 둥근 느낌의 블런트 단발 'Kim', 레이어드된 세미롱 스타일 'Aua', 자연스럽고 가벼운 느낌의 블런트 커트와 대조적인 긴 앞머리 'Maryline', 짧지만 정형적이지 않은 테이퍼링 커트 'Clyde', 세미롱 테이퍼링 스타일 'Bonnie', 베이지 블론드 발레아아쥬 'Grace' 등 8개의 스타일로 제시됐다. <그림3-52>



<그림3-39> 2006 아모스
출처 (www.amoshair.co.kr)



<그림3-40> 2006 박 준 뷰티랩
출처 (www.esteticakorea.com)



<그림3-41> 2006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42> 2006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beautynury.com/b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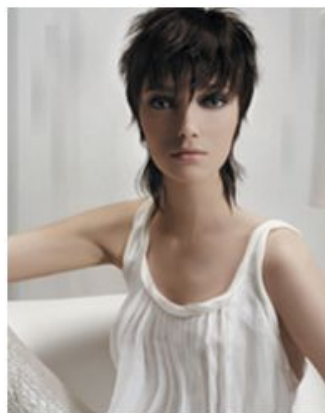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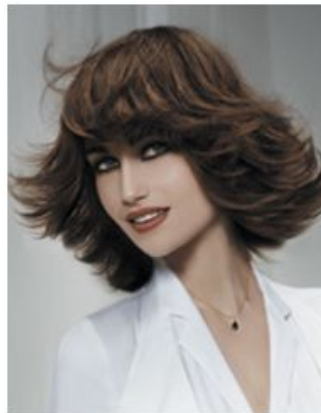
<그림3-43> 2006 Lee Kyung Min foret
출처 (www.esteticakorea.com/article)



<그림3-44> 2006 웰 라
출처 (www.wella.com)



<그림3-45> 2006 로레알
출처 (www.esteticakorea.com/article)



<그림3-46> 2006 자끄데상쥬
출처 (www.esteticakorea.com/article)



<그림3-47> 2006 비달사순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48> 2007 아모스
출처 (www.amoshair.co.kr)



<그림3-49> 2007 웰 라
출처 (www.wella.com)



<그림3-50> 2007 로레알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51> 2007 자끄데상쥬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52> 2007 프랑크프로보
출처 (www.beautynury.com/bnh)

(9) 2008년

08년 아모스는 08년도 패션의 지배적 무드인 Luxury, Minimal, Modern, Classic을 믹스 & 매치 시켜 아트 적으로 표현한다. 밥스타일을 이은 숏컷스타일과 무거운 레이어 컷트 웨이브 릿지의 강도 변화특징이다.<그림3-53>

2008 박준S/S 트렌드는 가공하지 않는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Naturalism(네추럴리즘)'이다. 비대칭 보브 스타일과 뱅 헤어, 내추럴 웨이브, 레이어드 롱 스타일 등이 강세이며 컬러는 전반적으로 밝아지며 하나의 색상보다는 존을 나누어 각각 다른 컬러가 파팅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연출 할 수 있거나 로우라이트와 하이라이트의 블렌딩 하였다.<그림3-54>

박승철헤어스튜디오가 제안하는 헤어트렌드는 여성스러운 분위기 속에도 강렬한 포인트를 지녔다. 비대칭의 불균형적인 디자인과 부드럽고 낭만적이지만 도시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헤어스타일. 헤어 컬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볼륨감있게 혼합됐다.<그림3-55>

이가자헤어비스 트렌드 컬렉션 'LUXE GRUNGE'는 가을/겨울에도 단발 커트의 강세는 계속된다고 내다 본다. 1970년대 Boho룩(보헤미안룩)의 'chic & luxury' 버전과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지(grunge)룩을 재해석해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의 이미지(Luxury & Grunge)의 자유로운 영혼과 고급스러운 취향의 결합을 통해 세련된 컨템포러리 룩으로 완성시켰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운드 형태를 주로 사용, 가벼운 디스커넥션을 이용해 고급스러운 라운드 형태에 가벼운 에지를 만들어서 LUXE GRUNGE를 완성했다. 전체적인 컬러 톤은 탁한 적갈색, 어두운 회색, 탁한 오렌지 등을 주로 이용하고 디스커넥션된 포인트 부분 등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선명한톤으로 포인트를 준다.<그림3-56>

웰라 트렌드 또한 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 미래 지향적인 추상적인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깨끗하게 정돈된 컷트와 볼륨감 또한 특징적 이라고 하겠다. 에스닉한 감성으로 비대칭적 형태와 화려하고 무거운 듯 한 느낌을 특징으로 한다.<그림3-57>

로레알프로페셔널파리는 느와르 필름과 스릴러에서 나오는 팜프파탈과

스파이를 테마로 한 08-09 F/W 컬렉션 ‘THRILLER(스릴러)’를 선보였다. 스릴러'는 고혹적이고 요염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팜프파탈(Femmes Fatales)’과 파워풀하고 활동적인 매니쉬함과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쉬크한 스타일리쉬함을 함께 보여주는 ‘스파이(Spies)’ , 두가지 컨셉으로 제시됐다. 컬러는 핏빛을 떠올리게 하는 진한 레드와 짙은 바이올렛, 적갈색 컬러가 주를 이루며 헤어 스타일은 강렬한 업 스타일과 숏 헤어가 강조되며 루즈한 웨이브와 레이어드가 많이 된 커트 스타일로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중성을 보여준다.<그림3-58>

자크데상쥬 08 S/S 헤어트렌드에서는 쉬크하고 섹시한, 자극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발머리, 클래식, 락앤롤, 반항적인 그 모든 분위기가 가능한 컷, 바로 쓰리-인-원을 제안한다. <그림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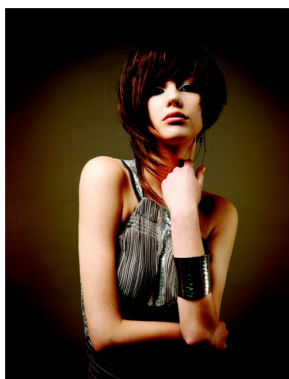
F/W ‘데상쥬 터치(DESSANGE TOUCH)’에서는 다양한 블론드 헤어 컬러를 통해 가장 정통성 있는 자크데상쥬의 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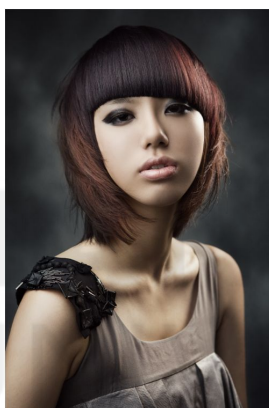
<그림3-53> 2008 아모스
출처 (www.amoshair.co.kr)



<그림3-54> 2008 박준뷰티랩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55> 2008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beautynury.com/b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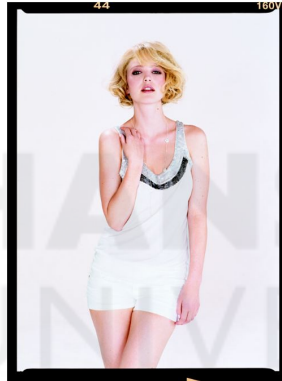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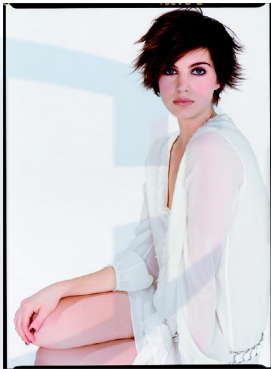
<그림3-56> 2008 이가자헤어비스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57> 2008 웰 라
출처 (www.wella.com)



<그림3-58> 2008 로레알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59> 2008 자끄데상쥬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60> 2008 자끄데상쥬
출처 (www.beautynury.com/bnh)

(10) 2009년

2009년 아모스는 클래식 무드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헤어 텍스처 및 형태의 제안과 함께, 아트적 감성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칼라링을 제안한다.<그림3-61>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에서는 f/w트렌드 'Mainstream'을 발표했다. 특징 시대적 배경이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표현했다.<그림3-62>

웰라는 창조적이며 미래 지향적 이다. 또한 더욱 개인화 된 트렌드를 보여준다. 중성적 이미지의 가벼운 커트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입체적 컬러를 보여준다.<그림3-63>

로레알프로페셔널파리가 추천하는 최신 헤어컬러와 스타일은 'Precious Garden(꿈의 정원)'을 테마로 소개되는 이번 컬렉션은 밝은 빛과 생생함이 가득한 자연에서 이뤄진 섬세하면서도 컬러풀한 정원의 아름다운 꽃에서 탄생한 헤어 컬러는 핑크, 그린, 블루, 바이올렛 등으로 표현된다. 스타일 또한 각각의 색상과 어우러져 다양한 스타일이 선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시농 스타일과 기하학적인 컷의 길게 내려오는 프린지가 시선을 끈다.<그림3-64>

자크데상쥬 09 S/S 헤어트렌드 'Collection Printemps' 는 복고와 기하학적인 컷의 흐름을 타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우아함을 재해석한 스타일. alexa는 물결 라인의 웨이브와 밝은 컬러는 로맨틱하고 섹시한 여성미를 살렸다.<그림3-65>

비달사순은 2009년 여름시즌, 뒤탈을 살려주는 헤어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 비달사순이 제안하는 완벽한 뒤탈을 위한 헤어 스타일은 내추럴 웨이브(Natural Wave), 파워 스트레이트 (Power Straight), 그리고 글램 웨이브 (Glam Wave)다.<그림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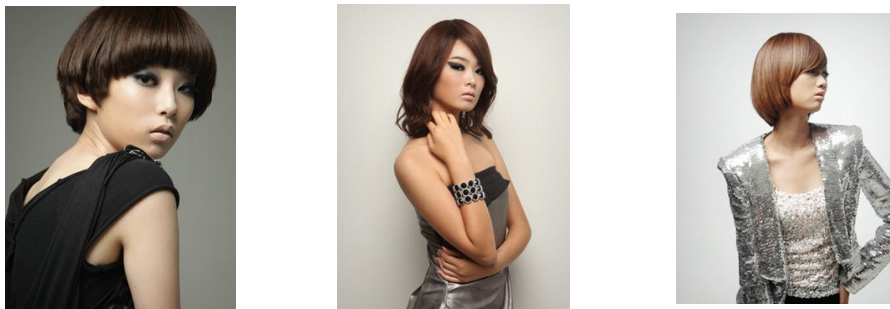
프랑크프로보 파리 2009 S/S 컷 & 컬러 컬렉션은 자연스러운 밝은 하이라이트와 여성들의 욕구에 따라 변화되는 커트를 특징으로 하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컷은 모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웨임을 포함하며 컬러는 모발의 전반적인 셰이드와 고르게 섞인다.<그림3-67> 또한 F/W 에서는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영혼을 닮은 헤어스타일이 프랑프로보 컬렉션

을 통해 재현했다. <그림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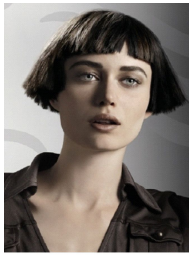
로레알프로 F/W 컬렉션 ‘ROCK’ N’ FOLK(록 앤 포크)에서는 우리 시대 가장 아이콘적인 음악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분방함과 반항의 시대를 반영하는 화려하며 강렬한 ‘로큰롤(Rock N Roll)’ 룩과 저항문화와 서정적인 감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희망과 끈기, 내추럴함을 보여주는 ‘포크(Folk)’ 룩의 2가지 컨셉으로 다양한 6가지 룩을 보여준다. 컬러는 다크 브라운에서 라이트 브라운, 잿빛 브라운, 오렌지와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등의 컬러로 표현되고 스타일 또한 각각의 색상과 어우러져 강렬함이 돋보이는 숏컷, 한껏 부풀린 볼륨 헤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내추럴한 뱅 헤어, 꾸미지 않은 듯 흐트러뜨린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그림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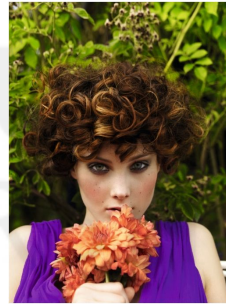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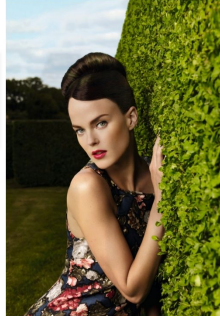
<그림3-61> 2009 아모스
출처 (www.amoshai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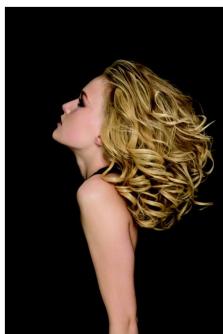
<그림3-62> 2009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출처 (www.pschair.co.kr)



<그림3-63> 2009 웰 라
출처 (www.we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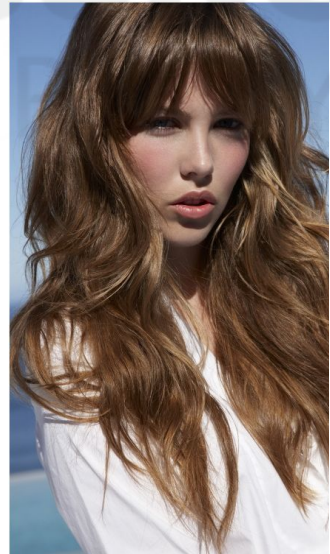
<그림3-64> 2009 로 레 알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65> 2009 자끄데상쥬
출처 (www.beautynury.com/b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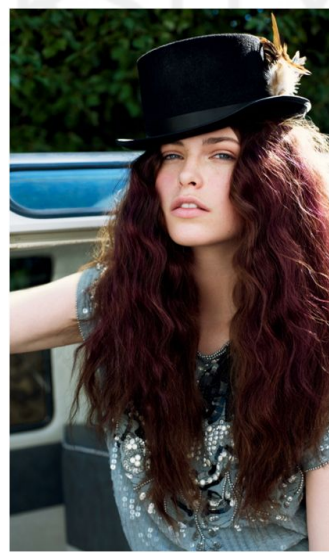
<그림3-66> 2009 비달사순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67> 2009 프랑크프로보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68> 2009 프랑크프로보
출처 (www.beautynury.com/bnh)



<그림3-69> 2009 로 레 알
출처 (www.beautynury.com/bnh)

2) 감성이미지를 이용한 유형분류

지금까지 감성 이미지 분류는 패션디자인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적용하여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 트렌드 발표회 및 다양한 헤어쇼, 그리고 학계의 연계된 논문들을 통해 많이 연구 되고 사용되고 있다.

패션 감성 이미지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현경, 조규화는 2005년 얼굴형과 패션 감각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에 관한 연구에서 [표3-7]을 제시 하였다.

[표3-7] ⁴¹⁾ 안현경의 이미지 분류

엘레강스	웨이브와 볼륨있는 업스타일에 중간정도의 질감을 가진 우아한 스타일
에 스 닉	가르마나 가르마 없이 볼륨도 없는 매끄러운 질감의 헤어스타일
로맨틱 프리티	길고 굵은 웨이브에 묶거나 땀은 머리에 앞머리 내림 소녀다운 스타일
스 포 티	짧고 거칠고 매끄러운 복합 질감 있는 활동적 스타일
소피스티케이티드	스트레이트이거나 도시적 세련된 스타일
내 추 털	매끄러운 원랭스나 레이어드형의 롱 스트레이트의 변화된 자연적이며 소박한 스타일
섹 시	굵은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레이어드와 볼륨 많거나 촉촉한 스타일

정옥희는 2003년에 이미지별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표3-8]를 제시 하였다.

[표3-8] ⁴²⁾ 정옥희의 이미지 분류

엘레강스	우아하고 고상하며 굵은 웨이브 스타일
모 던	깔끔하고 세련되며 약간의 웨이브 있는 스타일
로 맨 틱	웨이브 있고 볼륨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풍성한 스타일
내 추 털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흘러내리는 스타일
에 스 닉	흑인의 유전적 곱슬머리를 살린 스타일

김정순은 2002년 여대생들의 헤어 스타일 행동에 따른 이미지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표3-9]을 특징으로 정리 하였다.

41) 안현경의 1명, 「헤어패션 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제9권 5호, 2005, p.39

42) 정옥희 「이미지별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2003, p18

[표3-9] 43) 김정순의 이미지 분류

엘레강스	업스타일이나 자연스런 웨이브 스타일
모던	숏 레이어나 보브 스타일
로맨틱	롱 헤어나 웨이브 스타일
내추럴	롱 헤어를 묶는 스타일
엑티브	숏컷 스타일
이그조틱	앞머리는 내리고 뒷머리는 묶는 스타일
매니쉬	짧고 깔끔한 스타일
아방가르드	획기적인 스타일의 표현

장규순은 2008년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토털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에서 [표3-10]와 같이 결론으로 정리 하였다.

[표3-10] 44) 장규순의 이미지 분류

모던	세련되고 진보적인 스타일
메니쉬	남성적인 이미지
엑티브	밝고 쾌활한 활동적인 스타일 S
컨트리	전원생활의 자유스러움이 돋보이는 스타일
내추럴	천연의 소박함과 자연미가 강조된 스타일
에스닉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이미지
클래식	전통과의 보편화된 안정감있는 이미지
로맨틱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소녀스타일의 패션 감각이 강조된 스타일
엘레강스	우아한 품위의 성숙한 여성미가 강조된 스타일
소피스티케이티드	전문적인 도시여성의 세련미를 추구하는 스타일

위의 선행 논문외 몇 개의 논문을 고찰한 결과 패션이미지와 는 달리 헤어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던과 소피스티케이티드, 메니쉬와 엑티브, 컨트리와 내추럴, 클래식과 엘레강스가 헤어디자인 적으로는 구분 짓기 힘들고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꾸밈으로 구분 지어야 하기에 헤어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인 본연구와 맞지 않아 감성 이미지를 모던, 엑티브, 내추럴, 에스닉, 엘레강스, 로맨틱 6가지로 정하였고 다음과 같다.

모던(Modern)이미지는 도시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면서 심플하고도 샤프한 지적 세련미까지 포함한 감성이다. 회색이나 검정을 베이

43) 김정순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행동에 따른 이미지별 선호도」, 경성대 석사논문, 2002, pp.14-19

44) 장규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토털 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39-141

스 컬러로 사용하고, 회색이 가미된 흰색, 청색 계열의 색상을 모던 컬러로 사용한다. 헤어스타일은 염색이 지나치게 밝지 않고 되도록 어둡고 진한 색상이 좋다. 쇼트(Short hair)는 응용된 샐기컷의 유니폼 레이어형이 많고 미디엄(Medium)과 롱헤어(Long hair)는 그레쥬에이션 형이 많다. 웨이브 보다는 스트레이트 형등의 깔끔한 스타일이 대표 이미지라 할 수 있겠다.

액티브(Active)이미지는 밝고 쾌활한 이미지이다. 헤어스타일은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쇼트헤어가 많고 짧은 쇼트일 경우 모발 끝이 가볍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좋다. 미디엄 이상의 길이에서는 레이어 형이 많고 헤어 중심점이 위로 향하게 하는 ‘포니테일’ 스타일이 좋다. 액티브 이미지에서는 아주 굵은웨이브나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 형이 좋으며 샐기스타일의 질감이다.

내추럴(Natural)이미지는 천연적인 소박함과 자연미가 강조된 스타일로 다소 솔리드한 텍스춰와 그레쥬에이션 형의 실루엣 자연스러운 웨이브나 머리를 올려 목덜라도 나머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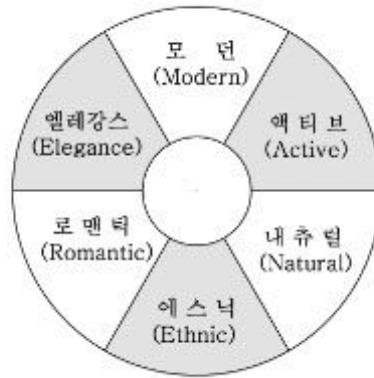
에스닉(Ethnic)이미지는 민속풍취향의 감각으로 이국적인 무드의 감성을 말한다. 엑조틱(Exotic)이나 포클로어(Folkler)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졌으나, 에스닉과 포클로어는 동남아, 중동, 유럽의 민속풍 색채가 강하고 엑조틱은 열대 지방의 이미지를 갖는다. 대체로 오리엔탈, 라틴, 집시룩 등이 이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이미지를 에스닉 이미지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드레드 익스텐션과, 땅기등이 속한다.

엘레강스(Elegance)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품위있는 여성다움을 지향하는 트렌드 이미지로 전통을 고수하는 클래식과 보수성을 지닌 컨설버티브(Conservative)와 비슷한 감성을 지님으로써 다크계열의 와인이나 브라운 색상이 주 컬러로 사용된다. 헤어는 볼륨있는 롱웨이브 와 곡선적인 스타일 조금은 무거운듯한 질감의 그레쥬에이션형의 커트 스타일이 주로 사용된다.

로맨틱(Romantic)이미지는 완숙한 아름다움보다는 소녀티가 나는 이미지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 롱헤어 웨이브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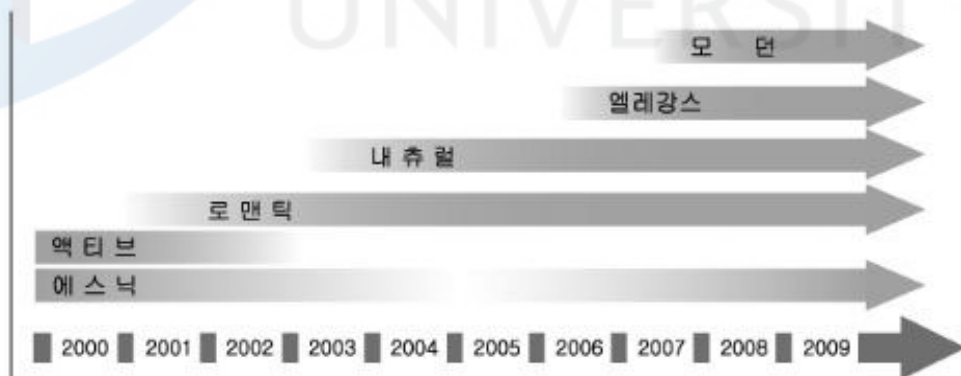
일과 미디엄 웨이브스타일과 앞머리를 내리는 소녀다운 스타일이 특징이라 하겠다.

다음 <그림3-70>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감성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3-70> 감성이미지 분류

헤어디자인 유형에서 고찰한 연도별 헤어디자인특성과 헤어디자인 트렌드를 감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크게 분류했다.



<그림3-71> 연도별 감성이미지

2000년대 초반은 에스닉과 액티브이미지 경향속에 2002년부터 로맨틱이 이미지 경향이 믹스(Mix)된다. 2004, 05, 06은 로맨틱 이미지와 함께 네추럴 이미지가 믹스 된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 불어온 자연주의 웰빙영

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웰빙 영향은 그후로도 계속되어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고 2007, 08, 09년은 복고트렌드 영향으로 20세기 패션 열풍이 불면서 엘레강스 이미지와 모던, 에스닉 이미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그림3-71>은 연도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감성 이미지를 도식한 것이다.

3. 헤어디자인 특성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헤어 디자인 트렌드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헤어디자인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에스닉의 영향을 아프리카적인 요소의 다양한 질감을 응용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네츄럴리즘의 영향으로 액티브한 가벼운 질감과 아방가르드한 어씨메트릭컷 형태가 유행하였고 더불어 컬러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그 느낌은 배가 시키고 있다.

2004년과 2005, 2006년은 복고(레트로) 경향과 웰빙의 영향으로 가벼운 질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레이어 또한 점점 줄어 들어 실루엣이 다소 무거운 형태를 띄어 가지만 아직은 과도기적인 느낌을 주면서 2000대 초반의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컬러링은 웰빙의 영향으로 확실하게 줄어 들어 보여지는 무게감의 느낌은 확연하게 무거워진다. 또한 로맨틱시즘의 풍성한 볼륨과 혹은 자연스러운 헐렁한 웨이브 실루엣이 나타난다.

2006년 중반을 거쳐 2009년 현재까지는 무게감이 늘어나 디자인 형태에 있어서는 하이레이어 형태의 가벼운 질감의 머리는 현저히 줄고 60년대 80년대 엘레강스 스타일의 로우 레이어 형태의 디자인과 로우 그레주에이션 스타일 블런트한 느낌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길이 또한 짧아져 쇼트 스타일의 강세를 볼 수 있다.

시즌마다의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헤어스타일의 이미지와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닉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분석표 3-2]은 시즌별 헤어 디자인 특성을 [연구분석표 3-3]은 헤어디자인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다.

[연구분석표 3-2] 헤어디자인 특성

년도	특 성		
	형태	질감	칼라
00	레이어컷트, 직선적앞머리	포인트컷팅 기법과 커모아웃기법을 통한 끝발 끝의 가벼운 질감	2톤 컬러와 3톤 컬러 기법의 대담한 컬러링
01	대칭적인형태의 슬림한 실루엣	디스커넥션 기법으로 아웃라인의 뽀족한 끝과 방향성 내부텍스춰	따뜻한 브라운칼라와 화려한 잿빛의 대조
02	다양한 모발의 길이로 자연스러운 형태감	탐의 짧아진 길이와 과감한 질감처리로 형클어진듯한 질감	가다가닥 염색된 컬러링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움 부여
03	풍성한 웨이브의 형태와 불규칙한 웨이브	뽀족한 끝 처리를 위해 롱스트루크 기법과 비대칭적 레이어기법	브론즈와 잿빛 컬러의 조화
04	가벼운 질감의 웨이브 내추럴웨이브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의 앞머리와 기하학적 스타일	레드 컬러의 브라운 마호가니와 오렌지빛
05	자연스러운 질감과 로맨틱하고 풍성한 웨이브	굵고 불규칙한 거친 웨이브 스타일과 뱅스타일	자연스러운 질감의 다소 어두운 컬러 강세
06	글래머러스한 웨이브와 보브스타일의 형태	머리끝쪽의 테이퍼링을 이용한 실루엣의 가벼움	블랙과 어두운 골드브라운의 강세
07	무거운듯한 실루엣의 네추럴 웨이브 스타일과 미디움 보브 스타일	실루엣의 무거움을 극복하기위한 질감처리	윤기있는 다크 브라운 컬러
08	부드러운 헐렁한 웨이브와 비대칭적 형태	무게감을 다치지 않는 범위의 질감 처리	다소 밝아진 컬러감과 베이지 톤의 브라운
09	로우그라데이션의 무게감 속에 강하고 깨끗한 실루엣	끝머리의 자연스러움만 줄이는 정도의 질감처리	밝아진 컬러

[연구분석표 3-3] 헤어디자인 변화 추이

시 준	특 징	감성이미지와 믹스(mix) 무드			
00	가벼운 텍스춰와 다양한 컬러링, 아프로 스타일과 헤어익스텐션과 레게스타일	에스닉 엑티브	핑크,		
01	직선적이고 짧은 앞머리스타일과 컬러링 매트하고 덩수룩한 질감의 모발질감		오리엔탈리즘		
02	히피풍의 레이어드 샷기컷트와 웨이브	로맨틱	페미닌, 에스닉히피		
03	내추럴한 루즈 스타일 롱 웨이브 가벼운 텍스춰		레트로, 에스닉, 미니멀		
04	풍부한 내추럴 웨이브의 볼륨과 율동감 부드러운 유연함 60년대 스타일의 앞머리 웰빙트 렌드로 인한 칼라링 감소		내추럴	엘레강스, 레트로, 페미닌, 자연주의	
05	로맨틱한 볼륨과 웨이브와 무거워지는 질감			레트로, 페미닌,	
06	80년대 레트로 스타일의 출현과 보브스타일			엘레강스 모던	페미닌 자연주의, 에스닉
07	심플한 보브스타일과 60년대 루즈한 웨이브				레트로, 미니멀, 페미닌
08	밥스타일을 이은 숏컷스타일과 무거운 레이어 컷트 웨이브 릿지의 강도 변화와 빗질하지 않은듯한 웨이브 비대칭적인 실루엣				미니멀 에스닉, 클래식, 레트로
09	무거운 실루엣과 가벼운 텍스춰 밝아진 컬러 릿지가 강한 C컬, 베이비 펌, 비대칭 실루엣				레트로, 에스닉

제 4 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제안 연구 사례

제 3장에서 본 연구자는 연도별 헤어디자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감성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적 특성을 보면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유형적 특성을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라이프스타일 패션의 흐름이 책장을 넘기듯 일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은 사회 문화를 반영한 주된 무드속에 여러 가지 감성이 믹스 되어 재생산 되었다. 이것은 다른 감성의 형태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믹스 매치 하여 형태를 보완하고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제안될 트렌드는 주류를 이루는 감성 이미지와 무드를 재생산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감성을 믹스 매치하여 수 없이 많은 디자인을 탄생 시킬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감성적 분류 이미지를 맵핑하여 디자인 형태감을 찾고 각 연도별 많이 쓰여 졌던 테크닉과 특성을 이용하여 헤어디자인적용 작품을 제안 하겠다. 더불어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제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대별 특징을 제현 하는데 있지 않고 특징을 이용하여 현재 활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에 스타일링은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감각으로 스타일링 하였다.

1. 헤어디자인 컨셉 설정

액티브(Active) 이미지	
	적용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적용테크닉
	가벼운 질감을 위한 포인트컷기법, 커팅 아웃, 디스커넥션 기법
	컬 러
	매트한 잿빛 컬러

액티브 이미지는 2000, 2001, 2002년에 적용되는 이미지로 헤어스타일 전체에 가벼운 느낌을 극대화시킨 이미지이다.

직선적인 짧은 앞머리와 디스커넥션 커트 기법을 통하여 많은 레이어로 인한 후두부의 볼륨을 형성 시키고 포인트커트 기법과 많은 모량 제거, 잿빛헤어 컬러링을 이용하여 다소 지저분한 듯한 질감을 표현한다.

에스닉(Ethnic) 이미지



적용연도

2000년대
초반

적용테크닉

가벼운 질감을
위한 슬라이
싱 기법
디스커넥션
기법
굵은 웨이브
처리 땡기 테
크닉

컬 러

브라운 컬러

제3국의 관심표현에서 시작된 에스닉 이미지는 히피적느낌의 내추럴스타일과 땡기등을 이용한 레게스타일등으로 표현 한다. 또한 과감한 모혹스타일의 커트로 표현한다. 커트에 있어서는 가벼운 질감처리의 슬라이싱 기법과 디스커넥션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한다.

로맨틱(Romantic) 이미지



적용연도

2002년 이후
현재 까지

적용테크닉

굵은 웨이브
스타일을 위한
질감처리와 귀
여운 앞머리

컬 러

오렌지 브라운
핑크 브라운

2002년 이후 현재 까지 헤어스타일 전반에 믹스되고 있는 로맨틱 이미지는 귀여운 이미지 연출이 포인트이다. 따라서 뱅 스타일의 앞머리를 디자인 포인트로 하고 모발 내부 모량 감소를 위해 슬라이싱 기법과 틴닝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굵은 웨이브 표현을 한다. 또한 귀여운 느낌의 강조를 위해 자연스러운 업스타일 연출을 할 수 있다. 컬러는 밝은 오렌지 브라운이나 핑크브라운으로 가볍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내추럴(Natural) 이미지



적용연도

2004년대
이후

적용테크닉

슬라이싱
기법
디스커넥션
기법
굵은 웨이브
처리
컬 러

초코브라운
컬러

자연스운 헤어의 흐름이 중요한 내추럴이미지는 미듭과 롱헤어의 헤어디자인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미듭길이 이상의 헤어에 슬라이싱 기법과 디스커넥션 기법을 활용하여 헤어의 방향감을 부여하고 헐렁한듯한 웨이브를 스타일링하여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약간 밝은 듯한 초코브라운으로 내추럴이미지를 강조한다.

엘레강스(Elegance) 이미지



적용연도

2006년대
이후

적용테크닉

로우레이어
그레쥬이션

컬 러

초코브라운
컬러 및
전반적으로
어둡고
윤기있는
컬러

2006년대 이후 서서히 엘레강스 이미지가 증가하였다. 헤어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의 로우그레쥬이션과 로우레이어 형태의 스타일을 디자인한다. 무거운 느낌의 커트를 위하여 질감처리는 제한적으로 끝머리 위주로 처리하며 포인트 커트 테크닉을 활용한다. 이미지 강조를 위하여 강한 릿지의 컬을 위주로 스타일링 한다. 또한 어두운 컬러링을 통하여 클래식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초코브라운을 활용하여 윤기를 더한 깔끔한 이미지를 추가한다.

모던(Modern) 이미지



적용연도

2007년대
이후

적용테크닉

로우그레주에
이션 커트와
직선적
앞머리

컬 러

어둡고
윤기있는
컬러

2007년 이후 헤어디자인 트렌드 전반에 유행을 하고 있는 모던 이미지는 직선적 형태감의 커트스타일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라인에서 오는 무거운 이미지를 로우그레주에션 커트기법으로 강조하고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하여 단정한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 컬러 또한 블랙컬러나 매우 어두운 컬러를 활용하여 윤기만을 부여한다.

2. 헤어디자인 적용 연구 사례

1) 액티브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1>

컷트의 진행

- 섹션은 사이드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로 진행한다.
- 아웃라인은 목선으로 설정하고 길이는 약15cm를 설정한다.
- 베이스는 언더섹션은 온베이스에서 오프더 베이스로 진행하고, 오버섹션은 사이드베이스에서 오프더 베이스로 진행한다.
- 엘레베이션은 언더섹션은 천체축 90도와 전체축 80도 오버섹션은 천체축 70도와 두상각도 90도
- 분배는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
- 테크닉은 포인트컷을 사용한다.
- 질감처리는 이너 그라데이션과 라인 시닝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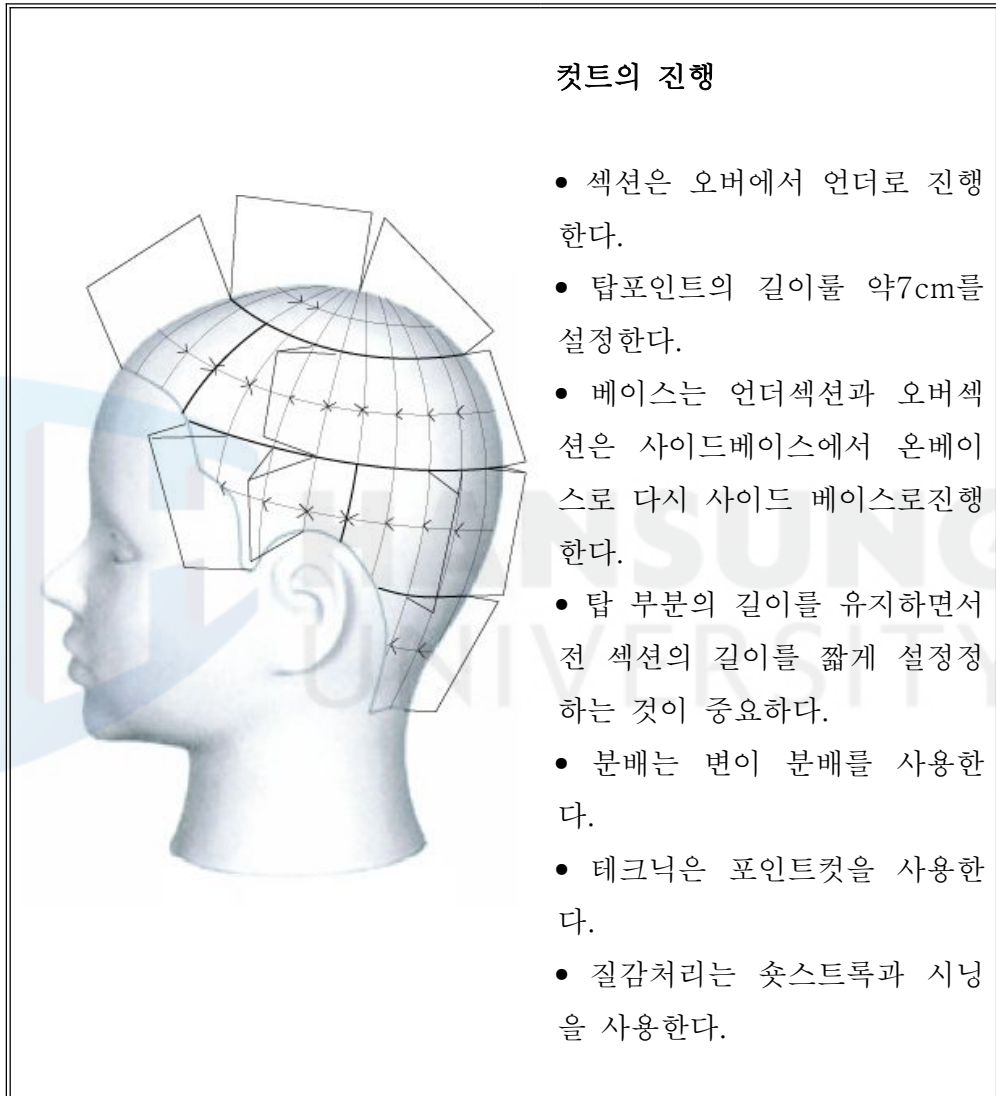
밝고 쾌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쇼트 스타일을 선택하였다. 전형적인 액티브 이미지를 위해 과감한 레이어와 가벼운 질감표현을 사용하였고 디스커넥션을 넣어 후두부의 볼륨을 주었다. 다소 바랜듯한 컬러를 사용하여 질감을 더했다.

<적용연구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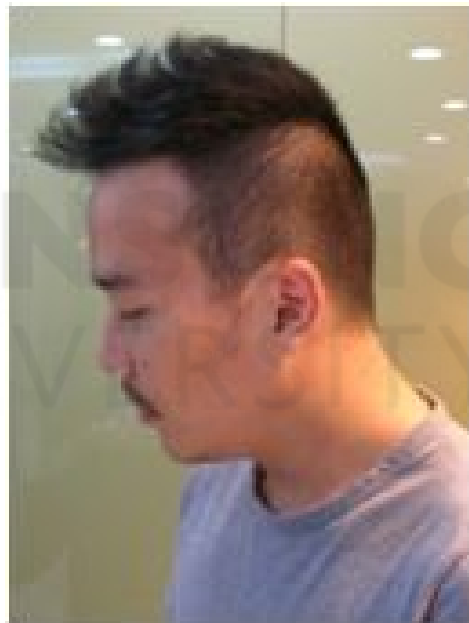
2) 에스닉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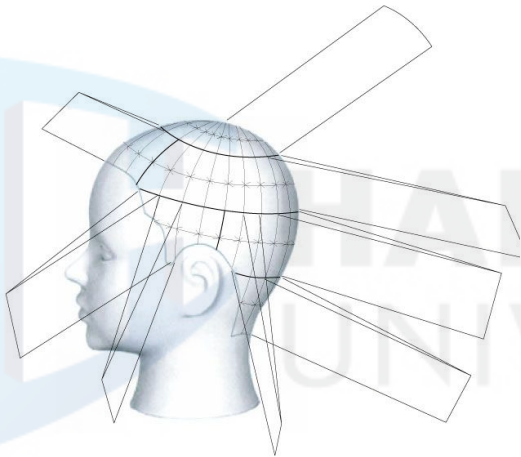
이국적인 감성을 살리기 위해 소프트 모혹 스타일과 극단적인 길이 차이를 준 하드 모혹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남성적 스타일로 탑의 길이와 사이드섹션 후두부의 길이 차이에 의해서 느낌의 차이 큰 것이 특징으로 거친 느낌의 질감 처리에 의해 편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적용연구사례 2>



3) 로맨틱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3>



컷트의 진행

- 섹션은 백 포인트에서 사이드 포인트로 진행한다.
- 아웃라인의 길이는 약20cm를 설정한다.
- 베이스는 언더섹션은 온베이스로 진행하고, 미듬섹션과 오버섹션또한 온베이스로 진행한다.
- 엘레베이션은 언더섹션은 천체축 70도와 전체축 80도 오버섹션은 천체축 90도와 두상각도 90도를 사용한다.
- 분배는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
- 테크닉은 포인트컷과 딥포인트컷을 사용한다.
- 질감처리는 이너 그라데이션과 라인 시닝을 사용한다.

소녀느낌의 이미지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겁지 않은 롱 레이어 컷트를 하였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연출과 스타일을 위해 끝머리 질감 처리를 하여 컷트하였다.

후두부는 라운드 레이어 형태로 온베이스하여 커트하고 사이드 부분은 얼굴라인을 따라 레이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커트 하여 가벼운 발랄함을 유도 하였다. 또한 업스타일을 연출하여 스타일링의 차별화와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 하였다.

<적용연구사례 3>



4) 내추럴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4>

컷트의 진행

- 섹션은 사이드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로 진행한다.
- 아웃라인의 길이는 약30cm를 설정한다.
- 베이스는 언더섹션은 온베이스로 진행하고, 미듬섹션과 오버섹션은 온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한다.
- 엘레베이션은 두상각도 90도를 사용한다.
- 분배는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
- 테크닉은 포인트컷과 슬라이스컷을 사용한다.
- 질감처리는 숏스트로크를 사용한다.

천연적인 소박함과 자연미가 강조된 스타일의 내츄럴 이미지를 위해 가벼운 텍스춰의 레어컷트를 하였고 스타일 전체의 무게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슬라이스 기법을 이용하여 모량을 40%정도 감소 시켰다. 스타일링 차별화를 위해 세미 업스타일을 하여 자연스러운 끝머리질감을 강조 하였다. 또한 남성 스타일은 아웃라인의 길이를 15cm로 하여 컷트 한여 스타일링 한다.

<적용연구사례 4>



5) 엘레강스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5>

컷트의 진행

- 섹션은 사이드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로 진행한다.
- 아웃라인의 길이는 약30cm를 설정한다.
- 사이드섹션은 고정 디자인 라인을 이용하여 아웃라인과 레이어를 형성시킨다. 언더섹션은 온베이스로 진행하고, 미들텍션과 오버섹션은 온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한다.
- 엘레베이션은 언더섹션은 천체축각도 30도를 사용한다. 오버섹션에 서는 두상각도 90도를 사용하여 필요이상의 무게를 제거한다.
- 분배는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
- 테크닉은 딥 포인트컷을 사용한다.
- 질감처리는 라인시닝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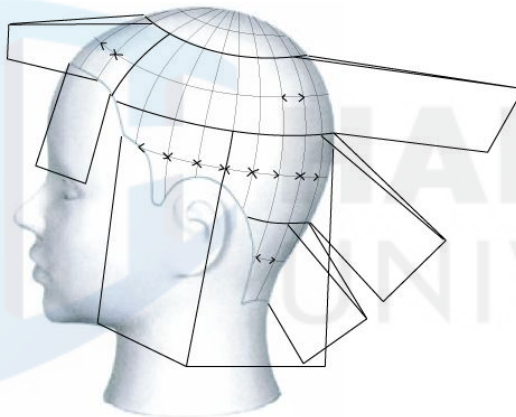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품위 있는 여성다움의 이미지인 엘레강스 이미지 표현을 위해 무거운 듯한 그레주에션 기법의 롱 헤어커트를 하였고 약간의 질감처리만을 하여 느낌을 더하였다. 스타일링은 웨이브를 이용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백콤 기법을 이용하여 머리를 부풀려 풍파두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적용연구사례 5>



6) 모 던 이미지

<도해연구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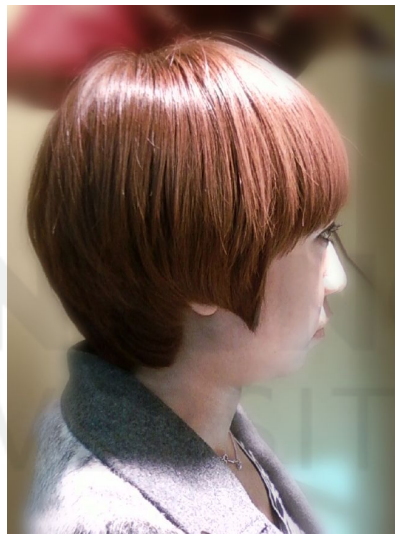


컷트의 진행

- 섹션은 백 포인트에서 사이드 포인트로 진행한다.
- 아웃라인의 길이는 앞턱밑 3cm를 설정하고 프론트는 눈썹과 눈사이에 걸쳐 설정한다..
- 언더섹션, 미들펙션과 오버섹션을 온베이로 진행한다.
- 엘레베이션은 언더섹션은 천체축각도 30도를 사용한다. 오버섹션에 서는 두상각도 90도로 무게를 제거한다.
- 분배는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
- 테크닉은 포인트컷을 사용한다.
- 질감처리는 라인시닝을 사용한다.

도시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면서 심플하고도 샤프한 지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의 로우레이어 형태의 커트를 하였다. 연결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제한적으로 끝머리의 무게감만을 감소 시켰고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이미지 강조를 위해 스트레이트 처리 하였다. 또한 너무 딱딱한 느낌의 커트 이미지를 상쇄 시키기 위해 레드 바이올렛의 칼라를 적용하였다.

<적용연구사례 6>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헤어디자인 문화 트렌드와 밀레니엄 시대 문화, 패션, 헤어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적용 방법에 대해 연구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헤어 디자인 유형은 풍요로운 시대와 아르누보의 영향 속에 귀족적이고 사치스러운 풍파두르 스타일이 주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과 실용주의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짧고 직선적인 보브 스타일이 등장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까지 페이지 밥드 스타일, 에드워드안 스타일, 웨이브 스타일 등으로 발전하고 전쟁 후 경제의 호황과 대중 매체 문화의 발전으로 영화배우들의 스타일이 유행을 한다. 특히 오드리 햅번의 쇼트스타일이 유명하였다. 1960년대 대중문화의 발전은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팝아트와 옹아트 미니멀리즘은 패션과 미용분야에 영향을 미쳐 미니스커트, 유니섹스룩, 히피룩과 함께 아프로 스타일, 히피스타일, 비달사순의 기하학적 커트 등이 탄생한다. 1970년대 경제 불황으로 핑크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1980년대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여피족이 등장하였다. 부드러운 웨이브 스타일과 배우 데이빗 보위의 스타일이 유행을 한다. 세기말에 이르러 세기말 경향과 해체주의 등이 나타나고 여러 형식의 크로스 오버 경향이 보인다. 헤어 스타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컬러링과 짧은 앞머리 긴생머리와 굵은 웨이브 등이 나타난다. 20세기 헤어디자인 문화 트렌드 고찰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의 경향이 패션과 헤어디자인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로 인해 미래화 되었지만, 9.11테러와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이 복고 경향을 만들었다. 또한 자연파괴에 따른 에콜로지 경향으로 웰빙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자기 가족만을 우선시 하는 좀 더 개인화되는 패션을 나타나게 한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무리들 즉 새로운 종족들

의 출현으로 삶의 방식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패션 또한 다양한 패턴들의 혼재 속에 크로스 오버적인 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복고 경향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0년에는 1950년대 로맨틱 패션 1960년대 미니멀리즘 1970년대 핑크 패션, 1980년대 맥시멀리즘등 다양한 스타일이 꾸준한 인기를 누렸고 2001년에는 주로 50년대 밀리터리룩과 80년대 여피스타일의 복고 패션이 인기를 끌었다. 2002년에는 70년대의 에스닉과 히피풍 스타일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2003년 패션 경향의 모티브가 된 것은 1960년대이다. 40년대, 60년대, 80년대의 여러 가지 패션들이 리메이크되어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60년대의 트렌드였다. 2004년은 전반적으로 70년대 풍의 빈티지나 50년대 스타일의 레이디 룩 경향이 많이 선보였다. 2005년은 모던 스타일의 어반 캐주얼 대두와 고전적인 유러피안 무드와 러시아 무드가 특징이라 하겠다. 2006년은 60년대 미니멀하면서 여성스러운 꾸레주룩과 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룩의 경향을 보여준다. 2007년은 80년대의 스포티하면서 글래머러스한 감성과 60년대 스페이스 에이지에서 보여졌던 퓨처리스틱(futuristic)한 감성이 큰 흐름을 형성한다. 2008년은 새로운 로맨티시즘에 대한 시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사랑과 자유를 외쳤던 70년대 히피 스타일이 다시 강조됐다. 2009년은 70, 8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실루엣과 원시 부족의 화려한 문화를 믹스하여 장식적인 새로운 드레스 업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렇듯 패션트렌드 또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복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은 뷰티트렌드에서 또한 복고 트렌드를 만든다.

2000년대 초반의 헤어스타일은 90년대 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발달 하였던 헤어컬러링은 계속 유행을 하고 제3국에 대한 관심은 에스닉 무드와 함께 헤어에서도 레게스타일등과 같은 스타일이 각광을 받는다. 2001년은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짧은 뱅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가벼운 질감의 헤어가 유행을 한다. 2002년과 2003년은 복고의 영향으로 가벼운 질감의 히피풍의 레이어드 샤기컷이 유행을 한다.

2004년은 엘레강스와 페미닌 무드속에서 60년대 스타일경향을 보이고 웰빙 트렌드로 인해 서서히 밝은 색의 헤어 컬러가 줄어든다. 2005년 또한 60년대 스타일의 강세 속에서 웰빙트렌드의 영향으로 헤어케어서장이 활성화 된다. 2006년 중반부터는 80년대 스타일이 각광을 받게 되고 비대칭 커트가 서서히 주목받는다. 2007년과 08,09년은 미니멀리즘과 복고경향으로 심플한 보브스타일과 60년대 루즈한 웨이브와 강한 릿지의 큰 웨이브 스타일 그리고 비대칭적인 스타일 주목받는다.

이렇듯 밀레니엄시대 전반에 걸쳐 복고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60년대와 80년대 스타일의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밀레니엄시대 헤어스타일을 감성분류 유형으로 나누고 헤어 디자인의 특성을 연도 별로 추출하였다.

감성분류는 선행논문 고찰을 통해 분류 하였고 헤어디자인 이미지가 중복되는 몇 가지를 이미지는 제하여 모던, 액티브, 내추럴, 에스닉, 엘레강스, 로맨틱 6가지로 정하였고 다음과 같다.

액티브(Active)이미지는 밝고 쾌활한 이미지를, 내추럴(Natural)이미지는 천연적인 소박함과 자연미가 강조된 스타일로 에스닉(Ethnic)이미지는 민속풍취향의 감각으로 이국적인 무드의 감성을 말하고 엘레강스(Elegance)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품위있는 여성다움을 지향하는 트렌드 이미지, 로맨틱(Romantic)이미지는 완숙한 아름다움보다는 소녀티가 나는 이미지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감성표현을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감성이미지를 이용하여 밀레니엄 시대 헤어디자인 분류를 하였다. 2000,2001,2002년은 액티브이미지와 에스닉 이미지의 강세 속에 2002년부터 로맨틱 이미지가 나타나 현재까지 롱 헤어의 분위기를 이끌고 2004년부터는 내추럴 이미지가 나타나 2006년까지 주류를 이룬다. 2006년부터는 엘레강스 이미지 2007년부터는 모던이미지가 더해져 헤어 디자인의 경향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감성이미지별로 밀레니엄 시대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작품 제작을 통해 헤어디자인을 적

용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결론지었다.

트렌드 고찰에 있어서 단일 정보 업체의 트렌드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하여 다소 객관성이 부족한 것이 제한점이었다.

향후 헤어디자인 트렌드의 발전을 위해 본 논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이 분야의 선행 자료로서 향후 유사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곽형심, 권대순, 권태신, 김효정, 이수경, 장경옥, 허순득,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4

라사라교육개발원 『20세기 유행의 변천사』, (주)라사라패션정보, 2000

양숙향, 김나형, 김은실 『패션20세기』, 교학연구사, 2006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이전숙, 김용숙, 이효진, 엄혜정, 『현대인의 패션』, 교문사, 2003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2004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2005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현대패션100년』, 교문사, 2002

(학술지)

김수영, 김혜수, 이연희 「베르사체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9권 2호 vol.9 No.2, 2009

권미윤, 고성현 「20세기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안현경, 조규화 「헤어패션 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제9권 5호』

(논문)

- 강유정 「시장 다변화에 의한 소비자 트렌드 양상이 패키지디자인에 적용된 사례연구」, 한양대 디자인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 권오향 「21세기 브랜딩 트렌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5
- 김승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소정 「Mix & Match Style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양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육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김정순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행동에 따는 이미지별 선호도」, 경성대 석사논문, 2002
- 박삼화 「헤어트렌드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현숙 「패션트렌드에 대한 국내 여성소비자의 수용현황과 수요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임숙 「패션트렌드에 따는 뷰티디자인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선영 「Beauty Trend 추이분석을 통한 유행 Make-up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규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토털 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전소현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Life style의 변화 와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의 TREND 체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재철 「국내패션 산업에 나타난 웰빙 문화 현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옥희 「이미지별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선덕 「20세기 중·후반기 서구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트렌드 분석」,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대학원, 2006
- 홍태화 「20대 여성 사용자 감성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휴대폰 GUI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기 타)

어패럴뉴스, 2003년 10월 27일, 12면, 2006년 10월 23일, 14면

2007년 03월 12일, 12면

어패럴 뉴스, ‘왜 감성 무드가 패션시장을 사로잡나?’ , 2003년01월23일
중앙일보. ‘佛 패션본고장 자존심 흔들, 1995.10.20

동아일보심층리포트, 한국사회의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연구, 2004.11

조선일보, 60년대 복고의 습격 패션은 반복이다, 2007

제일기획, ACR 보고서 ‘2007 SWITCHing KOREA’

제일기획, 마케팅 해부학 보고서 - 젊은 그들을 말한다, 2002

LG주간경제 ‘뉴밀레니엄의 마케팅 트렌드’ , 1999.7

LG애드 CPR ‘한국인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 2002

외국문헌

Costantino. Maria, *FASHION OF A DECADE THE 1930s*

Seeling. Charlotte, *Fashion-The Century Of The Desinger*: Koneman

Gertrud. Lehnert,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Germany* : Konemann

Feldman. Elane, *Fashions of Decade-1990s*, New York : Facts on File

(인터넷)

<http://cft.or.kr>

<http://fashionfacts.onsugar.com>

<http://hairhistory.blogspot.com>

www.hsad.co.kr/webzine/030102/index.asp (HS Ad Webzine)

www.samsungdesign.net

www.koreadaily.com

www.amoshair.co.kr

www.beautynury.com

www.esteticakorea.com

www.wella.com

www.jangup.com

www.hairnice.com

www.punkhaircuts.net

www.aspire7.net

www.100megspop3.com

www.eyewitnesstohistory.com

www.fashion-era.com

www.celebrity-hair-styles-magazine.com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al Hair Design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of Design Trend in The New Millennium age

Kim, Sun Min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rends in the millennium and proposes Hair Design. The paper consults statistical data of research institution and sansungdesignnet's trend data, treatises, hair magazines, newspaper to maintain objectivity. The paper is composed of as follows: First, Researching cultural type of hair design in 20th because 20th is background of millennium's beauty trend, This is known to give that social atmosphere and cultural trends have something to make fashion and hair design. Second, To know making hair design trend in millennium era research social culture. It makes retro trend that is future's unrest caused by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and economic slump and appearance well-being trend because of Eco Lodge trends. Well-being trend make personalized Pattern that is personal health a priority and only priority is his family and know the various aspects of life

about new species. Thir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w after researching beauty trend and to analysis hair trend type in millennium era. This is known hair design Characteristics. Fourth, Proposal Hair Design by stud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concludes. I really hope that this study helps the proper understanding about hair design and can be linked to the further study about this theme.

